

김정일우상화 사례집



통 일 원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밀영」: 매년 10 ~ 20만명의 각계각층 주민들을 동원 ·
참관케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케하고 있음〉

白头山顶 正日峰
 小白水河 碧玉溪流
 光明星诞五十週
 皆疑文 武忠孝備
 万民稱頌 齊同心
 欢呼声 震天地
 无礼三月十日 金日成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무늬물은 굽이쳐 흐르누다
 광명성한생하여 어느덧 된듯인가
 문무충효 섬이하4 모두다 우려드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아름 한결같아
 우렁찬 화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다
 1992. 2. 16 김일성

〈김일성이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기념하여 쓴 송시〉

光明星誕五十週
 小白水河
 白頭山頂
 碧玉溪流
 正日峯

雲霧湧 穿來雲霧
 霧已散 浩氣存
 一山一水 萬物生
 一草一木 皆有情
 一風一雨 皆天意
 一晴一陰 皆道心
 2. 2. 16 卍 雲

雲霧湧 穿來雲霧
 霧已散 浩氣存
 一山一水 萬物生
 一草一木 皆有情
 一風一雨 皆天意
 一晴一陰 皆道心



우리 땅에
 혁명 목격
 영민

7
 1

책을 내면서

이 책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과 위대성”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선전, 이상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목적으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991년 12월이후 최근까지의 북한발행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유형별로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 주요 참고자료 : 『로동신문』·『로동청년』·『민주조선』 등 일간지와 『천리마』·『조선문학』·『조선예술』 등의 잡지류

이 책이 북한체제의 특성 및 김정일우상화 실태를 이해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 책 내용중 사례부분은 원문 그대로 수록된 것이므로 인용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12

통 일 위 정보분석실

총 목 차

- I . 김정일우상화 추진과정..... 5

- II . 김정일우상화실태(사례) 41
 - 1. 지도자적 자질 및 위대성 선전 관련 43

 - 2. 해외인사(언론) 등을 통한 업적찬양 관련 199

 - 3. 『남조선 인민』들의 김정일 흠모날조 관련 255

김정일우상화 추진과정

1. 지도력 부각
2. 김정일의 “호칭” 변화
3. 교육을 통한 우상화
4. 김정일찬양 도서 및 문학작품 양산
5. 우상화 상징물
6. 김정일 업적 해외선전
7. 『남조선인민』들의 홍보 날조

1. 지도력 부각

가. 현지도

- 김정일은 1981.5 김일성을 수행한 묘향산지구 개발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실무지도』라는 이름으로 주요 산업·건설현장을 시찰하면서 각종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실무지도』대신 김일성에게만 사용하던 『현지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로동신문, '90.1.7)
- 이는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 및 권위부각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1981 - 1991년까지 60여차례의 실무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60%이상이 경공업분야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편의시설에 치중하고 있는 바, 이는 김정일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현지도 내용

년 도	현지(실무)지도	지시내용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향산 지구(5.18 - 22) ○ 빙상관 및 천석식당(8.16) ○ 인민대학습당(9.18) ○ 모란봉 경기장 및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거리(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및 야영·외국인 관광객 답사코스 시찰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란봉 경기장(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70회생일 기념물인 동 경기장 확장공사 조기완공지시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갑문(4.20) ○ 조선정치대학(6.27) ○ 옥류관 내부확장공사(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완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대책 지시 ○ 당의 군사노선을 받들어 전투 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육성 강조 ○ 대외봉사활동 및 근로자 봉사활동 강화 촉구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제품 전시장(3.31) ○ 말린 쌀밥공장 및 창광거리(4.1) ○ 남포갑문 건설장(4.11) ○ 함흥대극장(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개선을 위한 말린 쌀밥 공장건설 확대 및 주택단지 건설 조기완공 지시 ○ 건설장 유공군인 면담 ○ 극장완공 및 관리·운영사업 문제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제1고등중학교(4.28) ○ 수산물직매장 및 대성상점 (4.28) ○ 함남·청진시 일원 (5.15 - 18) ○ 혁명열사릉 확장공사장(6.21) ○ 수출품 전시장(6.21) ○ 경공업제품전시장(7.3) ○ 만수대의사당 신축장(7.19) ○ 평남북내 공업부문, 낙원 기계 공장·평북제련소 등 ○ 창광거리 주택단지(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촉구 ○ 싱싱한 수산물 공급확대 및 상점관리 운영방안 향상 촉구 ○ 김책제철소 5.10공장, 청진 조선소 등 시찰 ○ 혁명열사릉은 “항일투쟁의 혁명정신과 충성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교양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수출품목의 확대 및 질적제고, 가공품 생산 주력 지시 ○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의 필요성 강조 ○ 국제·국내적 중요회의 진행 용건물이라고 강조 ○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 제고 및 기술혁신운동 강화에 관한 과업 제시 ○ 주민들의 생활향상 및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 건설 촉구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성산 혁명열사릉 및 해방탑 (7.5) ○ 고려호텔 및 창광거리(8.6) 	

<p>19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위성통신 및 신미리열사릉 (3.4) ○ 홍남시 일원의 공장·기업소 (3.11) ○ 평양 『중앙동물원』(4.20) ○ 평양 『8.3인민소비품』직매점 및 도시건설사업장(5.30) ○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 전시장(7.17) ○ 평양 도시건설사업장(9.28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경대·안골체육경기장·학생소년궁전 건설대상에 대한 과업제시 ○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강화발전 촉구
<p>19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1.19) ○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지도(3.20) ○ 인민군 115부대(4.27) ○ 혁명연극 『사민일당』 창작지도(8.1) ○ 평양시 일원의 편의시설(9.7) ○ 평양 광복거리 건설현장(9.12) ○ 평양국제비행장(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수행 ○ 건설공정과 관련한 구체적 과업 제시
<p>1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문화회관(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류를 적극 발전시킬 것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체신·방송부문(4.5) ○ 자강도·강계시(4.13) ○ 자동차공업 부문(4.15) ○ 신의주시 건설사업장(6.24) ○ 함경북도(7.5 - 6) ○ 제13차 세계축전대비 780여점 행사도안 및 장식 도안 참관 (8.6) ○ 무산광산(8.9) ○ 상원시멘트공장(8.30) ○ 과학원 과학전시관(8.31) ○ 문화예술부 『혁명사적관』, 『경공업제품전시관』(10.29) ○ 옥류관 증축공사장(9.4) ○ 공작기계 전시관(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부문에서 200일 전투기간에 수행해야 할 과업 제시 ○ 자동차 수요와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자동차공업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 ○ 금속·전자·레이저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지시 ○ 봉사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을 지시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건설사업장(12.12) ○ 경공업제품전시장(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후생시설과 편의봉사망 구비 지시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통일거리 건설장(6.) ○ 양강·자강도(6.18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완공 지시 ○ 북부 철도공사 및 주변정리 사업 강화 지시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궤도전차화 1단계공사 현장(4.13) ○ 『조총련 합영제품전시장』(4.) ○ 인민군 499부대(4.26) ○ 평양 광복백화점(10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주민생활품의 원활한 공급 지시

나. 『김정일문헌』을 통한 업적 찬양

○ 북한은 최근 김정일에 의해 발표되었다고 하는 『김정일문헌』을 공개 또는 출판하면서 각종 선전매체 및 토론회를 통해 이들 문헌에 대한 해설·선전활동을 강화하는 등으로 김정일을 “사상과 이론을 겸비한 지도자”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북한전역 당간부 양성기관, 출판·교육·과학·문화예술분야 간부들을 동원, 『김정일문헌』 내용을 부문별로 찬양하는 『중앙연구토론회』 개최

— 각급조직·단체별로 당조직 간부·선전선동원·해설원

등을 내세워 문답식 학습, 해설모임, 담화모임 등의 형식으로 문헌내용을 항목별로 해설 선전

- 문헌을 통한 이상화의 특징은 김정일의 업적이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영도력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이며 또한 당건설 사업과 혁명위업에 대한 김정일의 업적을 중점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임.

주요 『김정일 문헌』

구분	발표시기	내 용	비고
정치 사상	61.11	○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논문
	62. 1	○ 현대 제국주의 특징과 침략본성에 대하여	논문
	62. 9	○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
	74. 4	○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
	76.10	○ 김일성주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
	79. 3	○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과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
	82. 3	○ 주체사상에 대하여 ※ 5개외국어 단행본으로 발행	"
	82.10	○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당이다.	"

	82.10	○ 혁명적 수령관	”
	84. 5	○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
	86. 7	○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88. 9	○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담화
	88.10	○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논문
	91. 5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담화
	92. 1	○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담화
	92.10	○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논문
경제	64. 3	○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郡)의 위치와 역할 ※ 김정일의 대학졸업논문으로서 김일성의 평북 창성군 현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군(郡)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지역적 거점으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 내용임.	논문
	84. 2	○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연설
	84.11	○ 국토 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편지
사회	70. 6	○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논문

73. 4	○ 영화예술론	논문
74. 5	○ 출판보도부문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사상적 무기	"
80. 1	○ 작가들의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높일데 대하 여	편지
81. 7	○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
82.12	○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
84. 5	○ 『직맹』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84. 5	○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85.12	○ 『농근맹』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88.10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 의 제일의 사명	"
88.10	○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
91. 8	○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

2. 김정일의 “호칭” 변화

북한은 1972.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 1973.9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와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면서부터 『당중앙』이라고 호칭하기 시작,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에서 호칭을 변화시켜 왔는 바, 현재까지 30여가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

'70년대

- '73.9이후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오다 '75.6 김정일의 생일을 휴무일로 공식 지정하면서부터 『유일한 지도자』라는 호칭이 등장하였음.
 - '77년이후 『당중앙』이라는 호칭과 함께 『영명하신 지도자』·『존경하는 지도자』·『경애하는 지도자동지』 등의 호칭이 등장하였으나 김정일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음.
- 또한 『당 중앙의 불빛을 우리러』 등의 가요보급을 통해 주민들에게 『당중앙』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한 바 있음.

'80년대

○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80.10,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였음.

— '83. 2 『영도자』(41회 생일 계기)

— '83. 5 『최고사령관』(김정일의 대군부 영향력 강화 목적)

— '85. 2 『수령』(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였다는 『수령론』에 근거)

— '86. 2 『인민의 아버지』

— '87. 2 『위대한 지도자』·『위대한 영도자』

(口號나무 발굴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 '80년대 호칭의 특징은 김정일의 생일을 기해 한단계씩 격상됨과 아울러 찬양수식어와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왔는 바,

— 즉, 대부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앞에 “영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모를 완벽하게 지닌” 등의 미사여구를 부쳐 그 의미를 강조하여 왔음.

'90년대

○ '90년대에는 김일성에 버금가는 호칭이 등장함으로써 김정일이 북한 권력의 최고수위임을 암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호칭은 다음과 같음.

- '90.12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의 지도자』
(로동신문 '90.12.19)
- '91. 7 『위대한 수령』
('91.7.1 인민경제대학 창립 45주 기념보고내용)
- '92.2.17 『친애하는(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50회 생일기념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시 최용해 사로청위원장 보고내용)

〈김정일의 주요호칭〉

• 친애하는 지도자 • 영명하신 지도자 • 당 중앙
• 지도자 선생님 • 혁명의 기수 • 절세의 위인 • 민족
의 향도자 • 세계적인 지도자 • 주체의 향도성 • 공산
주의 미래의 태양 • 희세의 위인 • 빛나는 예지를 지니
신 분 • 천재적 예지와 슬기높은 인망을 지닌 천재적 영
도자 • 창조와 건설의 영재 •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
자 • 정치적 생명의 위대한 보호자이며 은인 • 위대한
수령 • 친애하는 아버지

3. 교육을 통한 이상화

북한은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 명분하에 각급 학교 교과서에 김일성부자의 이상화내용을 수록, 교과과정화하고 있으며 각 사범대학에 “친혁과”를 신설, 특수교육을 하는 등 교육을 통한 김정일우상화에 주력하고 있음.

* “친혁과”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 학과』

가. 초·중등 교육

- 초·중등교육과정에 김정일관련 정규과목이 편성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 인민학교에는 4년동안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과목(152시간)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고등중학교에서는 6년동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112시간) 및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110시간)를 배우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국어·수학을 비롯한 거의 전과목에 걸쳐 김정일우상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국어·국어문학 교과서 단원은 236개 단원중 34개
 -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가사는 169개중 26개

- 나는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인민학교 1학년 국어 제9과 『참배』 p.31)
- 한자한자 적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러 보는 녀전사의 눈굽엔 행복의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 올랐다.
(고등중학교 2학년 국어 제7과 『은 나라를 뒤져서라도』 p.26)
- 아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백두산에 탄생하시었나니
백두산
거기서 조선의 별이 뜨고
거기서 조선의 행복
조선의 미래가 시작되었다.
(고등중학교 3학년 국어 제5과 『해돋이』 p.16)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은덕분교〉로 인민학교 학생 165명이 견학을 갑니다. 그 가운데 $\frac{3}{5}$ 은 4학년생이고 나머지는 3학년생입니다. 3학년과 4학년생이 각각 몇명입니까?(인민학교 4학년 수학 『분수』 p.160)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영예의 붉은기 분단〉 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영철

이네 분단은 40명,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다. 그 가운데서 우등생은 최우등생 수의 2배보다 4만큼 크다. 최우등생, 우등생은 각각 몇 명인가?

(고등중학교 2학년 대수 제3장 『런립방정식』 p.88)

- 경애하는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는곳 마다에 마련된 과일밭에서는 해마다 과일풍년이 듭니다.

(인민학교 3학년 자연 제1장 『가을철의 자연』 p.9)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통신은 부대의 신경과 같습니다……>

(고등중학교 3학년 물리 제11장 『소리』 p.138)

- 하나를 배워도 원수님 위해 불타는 충성의 맘 키우시던 곳 온나라 꽃봉오리 학습터 찾아 지도자 선생님을 따라 배워요

(인민학교 1학년 음악 제31과 『장자산의 학습터』 p.71)

- 금잔디 꽃잔디 반기는 학습터에도 지도자 선생님 그 영상 안기여와요. 군사놀이 이끄시던 산밭을 보아도 혁명의 뜻 키우시던 그 자욱 빛나요

(고등중학교 1학년 음악 제3과 『장자산은 높이 솟아있어요』 p.9)

나. 고등교육

- 북한은 그간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속해있던 『혁명력사학과』를 『김일성학과』와 『김정일학과』로 분리, 김정일의 위대성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1987년부터 김형직사범대학 등 각 사범대학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학과』(친혁과)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시켜오고 있는 바
 - 이 “친혁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학교마다 매년 20~50명 정도로서 제대군인중에서 사상이 투철하고 3년 이상 사회경험이 있는 자를 군당 인민위원회 교육처에서 선발하는데 실력보다는 가정의 배경과 성장과정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 1991.8 제1기생이 졸업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교원으로 진출하는 것과는 달리 당·정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나 도·군 사로청 등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며 각 행정기관 및 공장·기업소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김정일우상화교양에 주력하고 있음.

4. 김정일찬양 도서 및 문학작품 양산

- 북한은 김정일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찬양·칭송하는 책자·문학작품을 대량 발간하고 노래 등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한편
 - 일반주민들에게도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 창작을 장려하고 있는 바, 김정일이 『원수』로 추대된 '92.4부터 10월까지 1,600여편이 창작되었으며
 - 그중에서도 600여편의 시는 김정일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음.

주요 김정일 칭송책자

책 명	발간일자	비 고
○ 김정일 도록	1979	화보형식
○ 영원한 성과	1982.2	김정일 어린시절 활동과 품성을 찬양하는 100가지 일화집
○ 군사의 영재 김정일동지	1983	
○ 수령님 높은뜻 이어가시며	1983	
○ 인민의 지도자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발행
○ 김정일 지도자(1,2,3부)	1983.10	조총련 구월화방 발행
○ 시대의 지도자	1984	김정일 선전 사진첩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 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1984	
○ 김정일비서의 혁명역사	1984	김정일 유아시부터 제6차 당대 회시까지 행적(6장 38절)
○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1985	
○ 예술인들을 한품에 안는다	1985	
○ 민족의 태양	1985	
○ 인민군대 최고사령관	1985	
○ 문화예술의 창조	1985	
○ 인민의 지도자, 주체 시대를 빛내이시며	1985	
○ 동방의 위인 김정일	1987	외국인들의 헌시집
○ 향도의 햇살을 우러러	1987	시집
○ 온 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 요(1~8권)	1987	동요·동시집
○ 문학예술의 영재	1988	총 15권의 전집
○ 백두의 노을	1988	시집
○ 아! 정일봉	1988	시집
○ 충성과 효성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1)	1991	100여점의 이상건조물 사진자 료

5. 이상화 상징물

가. 혁명사적지 조성

○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혁명사적지'를 조성하여 왔는바, 1982년 『어은 혁명사적지』를 시작으로 현재 12개가 조성되어 있음.

○ 이 『사적지』는 대부분이 김정일의 출생지이거나 6.25 당시 피난처 및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시 야영했던 장소 또는 농촌 지원활동을 하였던 곳임.

* 혁명사적 : 로동계급의 수령 또는 탁월한 혁명가의 혁명 활동과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

(북한 『조선말대사전』 2권, 1992, p.945)

○ 동 혁명사적지에는 매년 10~20만명의 주민들을 동원, 참관시키고 있으며 참관자들은 기념식수를 비롯 『충성의 노래』 발표 모임, 시 낭송회 등을 갖고 김정일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을 맹세케 하고 있음.

지역별 혁명사적지

지역	혁명사적지	유래
평양	장산 혁명사적지	1957.3.31 나무를 심은 곳
	천동 혁명사적지	1954.10~1959.2까지 불모의 땅인 천동마을을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꽃피어 나가도록 이끌어준 곳

	이현 혁명사적지	
	어은 혁명사적지	성장기를 보낸 곳
자강도	덕골 혁명사적지	6.25당시 피난길에서 하루 낮을 체류한 곳
	장자산혁명사적지	6.25 당시 피난처
	성간 혁명사적지	
함경남도	검덕 혁명사적지	1975.11 김정일이 검덕광산 시찰 시 직접 내려와 보았다는 4,5호갱의 지하막장
	락원 혁명사적지	1967.7 락원마을의 건설방향을 제시해준 곳
함경북도	선봉 혁명사적지	
	경성 혁명사적지	
양강도	백두산 밀영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곳으로 「귀틀집」, 회의장소 등을 건립

나. 구호나무 조작

○ 북한은 1987.5부터 김정일 관련 『구호나무』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최근들어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 및 선전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200여 가지의 '탄생'과 관련한 김정일 칭송문헌이 발굴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음.

* 『구호나무』문헌 : 항일혁명투쟁 당시 빨치산 대원들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 새겼다는 글

○ 『구호나무』 발굴과 병행하여 이 일대를 혁명사적지로 조성, 주민 집단 참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같은 『구호문헌』을 주민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사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 선전·선동원을 통한 『구호문헌』 해설선전

— 공장·기업소 등에 『구호나무』 모형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이를 보고 결의를 다지도록 교육

○ 북한은 과학원 산하 합흥분원에 『혁명사적보존연구소』를 설치, 이 연구소 과학자들을 동원해 『구호나무』를 발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김정일 관련 주요 구호문헌〉

-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 2천만 동포여 자랑하라 백두산 하늘에 백두성 솟았다
- 조선 미래의 광휘 백두광명성 만세
-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다. 전설집 발간

○ 최근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과 같은 ‘혁명경력’이 전무함을 보완하기 위해 과거 김일성과 같은

수준의 전설 및 일화등을 조작,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김정일우상일화의 조작 선전은 김일성 우상화작업의 산실인 사회과학원 산하 『역사연구소』가 김정일의 출생 및 성장 배경에 맞는 전설·일화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유포담당 책임일군’들의 구전을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유포시킨 다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선전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있는 『백두광명성 전설집』(30편 편집)을 1991.9 문예출판사에서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제2권을 출판할 예정으로 있음.

〈전설 요지〉

○ ‘백두산 장사봉에 광명성 솟았다’

— 백두산천지에 나타난 한겨울의 흰제비로부터 “백두산 장사와 같이 천하를 다스릴 또 한분의 비범한 장사가 2월 16일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백발노인이 사람들에게 김정은의 탄생을 알렸다고 함.

○ ‘지동이 울다’

— 김정은이 해방후 청진시 인민학교를 방문, 왜놈들이 쓰던 지구의에 일본지도를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놓자 일본땅에 검은 구름과 소낙비가 내렸다고 함.

○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

- 김정일의 지시로 외국에서 우량품종의 젖소 한마리를 사서 비행기에 싣고 오던 중 전혀 새끼뺨 징후가 없던 그 소가 새끼를 낳는 기적이 생겼는데 그 일을 김정일에게 보고했더니 김정일은 이미 알고 있는 듯 웃으면서 “그 송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잘 키우라고 말하였다고 함.

○ ‘보약밥’

- 1984년 가을 서울의 한주민이 김정일이 남한 수재민에게 보내 준 쌀을 한짐지고 평택군에 있는 형네집에 가져다 주었는데 한줌의 쌀로 지은 밥이 두가마분량으로 불어났으며 그 밥을 먹으니 힘이 솟았다고 함.

○ ‘벼나무’

- 서울 교외의 한 판자촌에서 구호물자로 받은 북한쌀을 심었더니 큰 벼나무로 자라 10가마니의 쌀을 거두었다고 함.

○ ‘파고다공원에 핀 꽃’

-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애국자”들에게만 보이고 향기를 주는 김정일화가 피어나 사람들을 조국통일성업에 불러일으켰다고 함.

○ ‘쌍무지개’

- 김정일이 이른 아침 태어날 무렵 백두산천지의 얼음장이 신비로운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천지 위에 영롱한 쌍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함.

○ ‘마가목’

- 김정일이 태어날 때 천둥번개가 치고 천지가 붉은기운으로 뒤덮이더니 『백두산밀영』 주변에 전에 없던 마가목나무(의리와 구원, 선(善)과 미(美)의 상징)들이 자생하기 시작했다고 함.

○ ‘천지확장술’

- 김정일이 손을 번쩍들면 조화부리던 자연도 머리를 숙이고 손길이 닿으면 바다가 옥토로 변하며 발길이 한번 미치면 심산계곡도 낙원으로 변한다고 함.

○ ‘어린이 장수 일화’

- 김정일이 유년시절 백두산밀림에서 쌍안경을 쓰고 “왜놈이다, 돌격앞으로” 등을 외치며 전쟁놀이를 했으며 이를 본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산에 어린장수가 났다. 왜놈이 망할날도 멀지 않았다”고 흠모했다고 함.

○ ‘천기에측일화’

- 북한정권 창건 35주년('83.9.9) 기념행사와 관련,

행사전날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측근들이 행사 시간을 연기하자고 건의했으나 김정일이 “중대한 정치행사를 그대로 보장해야 한다”며 강행을 지시하는 순간 비가 뚝 그쳤다고 함.

라. 『김정일화』

○ 북한은 1988.2 김정일 46회 생일을 기해 일본의 한 화원 주인이 오랜 기간 연구끝에 재배에 성공, 기증하였다는 꽃을 『김정일화』로 명명,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재배와 번식을 촉구하고 있음.

— 동년 4.10 번식과 재배방법 연구를 위한 『김정일화 연구 집단』을 조직하였으며 평양 중앙식물원에 『김정일화 온실』을 설치

○ 또한 『김정일화』노래를 창작,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래 보급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공장·기업소는 물론 버스·기차 속에서까지 노래를 보급하고 있으며 노래모임을 통해 가사에 대한 해설과 암송, 합창 등을 진행하고 있음.

마. 금강산 등 명산에 김정일 ‘어록’ 및 이름 刻字

○ 북한은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인민의 지도자를 영원히 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표시”라는 미명하에 백두산·금강산 등 명산의 절벽 및 바

위에 김정일의 '어록'과 김정일 이름을 새겨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음.

- 이같은 글귀를 새겨놓은 곳에 근로자·학생 등 주민들을 집단동원, 해설모임·노래모임·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토록 하고 있음.

주요 명산의 刻字 내용

산 명	각 자 내 용	비 고
백두산	○ 『정일봉』	○ 1988.11 장군봉에서 20km거리인 봉우리
금강산	○ 『조선의 영광 민족의 자랑 김정일』 ○ 『주체의 향도성 김정일』 ○ 『금강산은 천하절승 김정일』	○ 만수봉 자연바위에 새긴 것으로서 『김정일』을 높이 15m, 폭 10m로 각자 ○ 1992.9월말 각자
묘향산	○ 『묘향산은 천하절승입니다 김정일 1981.5.19』 ○ 『조선의 영광 민족의 자랑 김정일』	

6. 김정일업적 해외선전

가. 선전의 특징

- 김정일에 대한 해외선전활동은 1980.10 제6차 당대회 이후부터 그 주요 선전양태는 ①해외 언론매체를 통한 선전 ②『김정일문헌』의 해외 출판 및 배포 ③외국도로·건물 등을 김정일 이름으로 명명 ④친북작가 동원, 김정일 찬양작품 발표 등이며 이외에도 친북단체를 동원, 김정일 찬양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김정일의 해외 선전지역은 최근들어 구 공산권 지역이 대폭 감소한 반면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비동맹국가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음.
- 이와같은 선전은 해외에서의 선전효과 자체보다는 이런 선전활동의 과정과 ‘조작된 성과’들을 역수입, 대내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이 해외에서도 ‘능력있는 지도자’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선전실태

1) 언론매체를 통한 선전

- 김정일 이상화를 위한 해외 선전중 언론매체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선전실태

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1989.12.5자 중앙방송 : 지난 5년간 85개국의 신문·잡지(총 부수 4억5천만부) 등에 김정일 위대성 게재
- 1992. 3.9자 로동신문 : 80여개국 420여개 출판보도물에 김정일 50회생일기념으로 업적 선전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선전 제목

- 조선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떤 분인가
-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신 김정일동지
-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과 그 승리의 비결
- 조선의 미래
- 조선 인민을 감화시키시는 김정일 각하 등

2) 『김정일문헌』의 해외출판 및 배포

- 최근 김정일의 각종 『문헌』들을 단행본, 문헌집, 발췌집 형식으로 대량출판하여 해외에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현지에서도 출판, 배포하고 있음.
- 북한은 '92.2 김정일 50회생일(2.16)을 맞아 첫 출판한 『김정일선집』(제1권)을 비롯하여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86.7),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87.9),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

다』('91.5)등 400여건의 문헌을 책자로 편찬, 수천만부를 출판하였다고 발표하였음.(중앙방송, '92.2.1)

- 동 문헌들은 『김일성동지 주체사상 연구소조』, 『주체사상 연구소』 등 친북단체들을 동원, 독보회·연구토론회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음.

3) 외국 도로·건물 등을 “김정일”로 命名

- 아프리카·남미 등지의 비동맹국가들의 일부 도로, 건물 등의 명칭을 “김정일”로 명명토록 하고 있음.

“김정일”로 命名된 도로·건물

지 역	구 명 칭	신 명 칭
가이아나	코리버튼시 파버 거리	김정일 거리
잠비아	루사카 무날리 중학교 12학년 1반	잠비아·조선 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친선 김정일 학 급
우간다	캄팔라 키탄테 인민학교 7학년 4반	김정일 우간다·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친선 학급
인 도	도서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도서관
페루(리마)	따라파제 1039 인민학교 6학년 졸업반	김정일 졸업반
튀니지	꾸드스학교 9학년 1반	김정일 학급
몽 골	다르한시 제21유치원	다르한시 김정일 유치원

(출처 : 로동신문 종합)

4) 친북작가 동원, 김정일찬양 작품 창작 발표

- 북한은 해외 친북작가들을 동원, 김정일생일 등을 기념하여 김정일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토록 유도하고 있는 바, 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주요 사례〉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의 령도자

와제브 만도지(콩고)

그 무엇도
조선인민의 전진
가로막지 못하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하고 계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꽃피우고 계시기에
탄생 50돌을 맞으시는
김정일동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에서
천만가지 업적을 이룩해 놓으시고도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으시다고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시여라
그이 걸어오신 50성상의 길에서
인민의 행복 꽃피웠고

자주성과 창조성이 구현된
존엄높은 생활이 펼쳐졌어라
김정일동지
그이는 사회주의의 령도자
50성상 빛나는 력사 창조 하시였어라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불멸의 업적 이룩하시였어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주체의 혁명적기치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시여라

(출처 : 로동신문 '92.10.12)

김정일 동지 따라 앞으로

아킴 싸무콘다(잠비아)

김정일 동지 당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계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당신은 조선인민의 명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은 당신의 사랑과
지도를 받고 있어

원수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인류리상의 상상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라

당신은 위대한 분의 후계자
당신은 조선을 떠메고나갈 위대한 지도자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당신이 이룩하신 모든 업적
앞으로 이룩하실 모든 성과를 축하하노라...

(출처 : 로동신문 '92.3.19)

7. 『남조선인민』들의 흠모 날조

- 북한은 1987년부터 김일성부자세습체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남조선 인민’들도 김정일을 흠모·존경하고 있다는 날조된 기사를 간헐적으로 보도하여 왔는 바, 최근들어서 그 빈도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 특징을 살펴보면
 - 이전에는 주로 대남선전선동용인 평양방송을 통해 보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대내언론매체인 중앙방송 및 노동신문·민주조선 등을 통해 집중 보도하고 있으며
 - 김정일을 존경·흠모한다는 ‘남조선인민’들도 종전과는 달리 지식인, 노동자, 예술인, 학생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점임.
- 또한 보도내용면에서는 김정일을 ‘주석의 후계자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라고 말한다는 점을 중점 보도, 남한사회에서도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며
 - 김정일을 ‘조선통일의 향도성’, ‘민족의 영도자’, ‘자주시대의 향도성’ 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지전능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음.

Ⅱ. 김정일우상화 실태(사례)

목 차

1. 지도자적 자질 및 위대성 선전 관련

- 가. 지도자적 인품 찬양
- 나. 김정일 서한 및 문헌을 통한 업적 찬양
- 다. 언론매체를 통한 충성심 제고 촉구
- 라. 김정일 명의 감사(문)·선물전달을 통해 관련 단체 및 개인들의 충성 유도
- 마. 백두산밀영 답사를 통한 찬양
- 바. 김정일찬양 문학작품(시,노래) 발표
- 사. 김정일관련 전설 조작

2. 해외 인사(언론) 등을 통한 업적찬양 관련

- 가. 해외언론매체를 통한 업적 찬양
- 나. 해외축전을 통한 찬양
- 다. 해외인사들의 칭송 반향
- 라. 김정일 찬양작품 발표

3. 『남조선인민』들의 김정일 흠모날조 관련

〈일 러 두 기〉

- 수록된 사례문은 요약 발췌된 것임
(단, 전설 및 시·노래는 전문 수록)
- 띄어쓰기 등 맞춤법은 가급적 원문 원형 그대로 반영하였음

1. 지도자적 자질 및 위대성 선전 관련

가. 지도자적 인품 찬양

〈영웅의 누이로서 하고 싶은 말〉

천리마('91. 11)

어느날 동생이 있던 부대는 중요한 군사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정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포탄이 터질 위기일발의 그 순간 동생은 한발자욱만 피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복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한순간을 지켜 만대에로 이어진 이 땅의 영광, 조국의 존엄을 떨치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권위와 잇닿은 길, 주체조국의 존엄과 귀중한 혁명동지들의 생명과 잇닿은 그 길에로 육박하는 순간 동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고 웨치며 불붙는 포탄상자를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창복이는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하늘이 안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복이를 낳은 어머니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며 마음을 쓰신분이 계시었으니 그분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의 동생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와 함께 《렬사증》을 안겨주시었으며 그의 중대를 영웅중대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영생의 삶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쳐도 바쳐도 더 바치고 싶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은 바로 갇아도 갇아도 끝이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열화와 같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는 것입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을 바친 한 전사의 가족을 위해 위대한 사랑의 선물들을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향과 함께 내려치던 동생의 평범한 소원을 헤아려 그를 평양의 가장 높은 지대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처럼 고결하고 뜨거우며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진대 우리 열백번 다시 일어나 삶을 바친들 무엇이 아까울게 있겠습니까.

김 금 순(항공체육선수단 노동자)

〈창창한 미래〉

조선여성(1992.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향도성이시고 그이의 빛나는 존함은 우리 조국의 미래,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인류의 미래와 닿아있다.

주체의 향도성 김정일동지! 이 부름속에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거장이시며 인간사랑의 화신으로 칭송하는 친애하는 그이에 대한 온 인류의 꿰어넘치는 흠모가 담겨져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대의 상상봉에 높이 서시여 오늘날이 아니라 인류의 먼 앞날까지도 환히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으로 무한대의 비약과 통성으로 우리 인민을 인도하신다.

우리 인민은 천리해안으로 천년미래를 환히 내다보시는 과학적 예견성과 통찰력에 있어서 친애하는 그이를 따를 영재가 이 세상에 없음을 확신하고있다.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은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넓고넓은 그 품에서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참으로 인간에 대한, 혁명전사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랑우에 높이 솟아있는, 인류가 오랜 세월 전설로 꽃피워온 인간사랑의 정화이며 친애하는 그이는 열렬한 인간애와 비범한 담력, 넓은 도량을 겸비하신 자애로운 스승이시다.

그러니 영명하신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신 우리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는 얼마나 창창한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영광〉

조선예술('92. 2)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사회주의 선진문화창조의 상상봉에 올라 세상사람들로부터 《주체예술의 조국》, 《20세기문예부흥의 발원지》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예술을 꽃피워나가고 있는 우리 창

작가, 예술인들의 크나큰 영예와 자랑이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 그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를 비롯하여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몸소 친필하시어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면서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으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이 뜻깊은 나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예술형식에 옮길때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 단원의 운명》 등을 영화로 옮기도록 하시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영화예술이 계승해야 할 만년초석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부르시여 우선 혁명가극 《피바다》 창조전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타오르기 시작한 가극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시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창작사업을 거의 동시에 이끄심으로써 1년남짓한 기간에 5대혁명가극을 《피바다》식으로 완성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가극혁명과 함께 연극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였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1978년 혁명연극 《성황당》을 무대에 올리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탄생하게 되었다.

뒤이어 《혈분만국회》, 《3인 1당》, 《딸에게서 온 편지》, 《경축대회》가 련이어 무대에 올라 짧은 기간에 5대혁명연극이 창조되었다.

참으로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조는 기울어져가던 연극예술의 운명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고 세계연극발전에 새로운 장을 펼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이 보람찬 나날에 무용부문에도 혁신이 일어나 4대명작무용인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이 창조되어 국내외에서 인기를 집중시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향도의 손길을 높이 드시여 문학예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첫시기부터 가장 큰 힘을 넣으시고 즐기차게 이끌어 오신것은 문학예술에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혁명적수령관확립에서 수령의 위대성교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여 수령형상문제를 우리 문학 예술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수령형상의 제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었으며 우수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창작집단을 무어주시고 그들의 창작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었다.

참으로 돌이켜볼수록 생각할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이 달성한 성과와 세기적전변은 진정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특히 최근년간 조선식전자음악의 창조는 현대음악발전의 상상봉에 오른 우리 나라 주체음악발전의 혁신적성과를 그대로 확증해주고 있으며 이번에 보천보경음악단의 일본방문공연은 그 빛나는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참으로 우리 문학예술이 이처럼 찬란히 개화만발하여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은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혜로운 품속에서 예술인대부대가 자라났으며 그 은정깊은 사랑속에 나역시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진두에 서계시고 그이께서 안겨주신 위력한 무기가 있는 한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란 없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 회오리바람이 폭풍쳐온다해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든꺾이에 굳게 뭉쳐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우리 당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의 영예를 빛내어나갈것이다.

장 철(정무원 부총리겸 문화예술부장)

〈세기의 위대한 령도자〉

천리마('92. 2 특간호)

10대에 벌써 통남산의 푸른 언덕에 거연히 서시어 수령님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고 20대에는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천명하시였으며 30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대한 강령을 선포하실제 우리 인민은 진정이 땅우에 태동하는 공산주의 미래를 그려보며 감격에 목메이었다.

몇해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산령 길을 오르시였다.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앞을 막아서며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왜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이렇게 백두산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증증첩첩 산악이 막아셔도 쉬이 넘을수 있는거라고 말씀하시였다.

아! 백두산정이 쨍쨍 울리도록 메아리쳐간 그날의 위대한 선언.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모든 불멸의 령도업적을 떠나 이 땅에 새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각이나 할 수 있으랴.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 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상과 로선으로 위대하고 신념과 담력으로 위대한 당의 령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비범한 령도예술로 위대하고 불멸의 업적으

로 위대한 당의 령도자, 전체 인민의 가슴에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간직된 불멸의 영상.

우리는 우리 당처럼 위대한 당을 알지 못한다.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위대한 령도아래 우리 인민은 얼마나 높은 세기의 상상봉우에 올라선것인가.

예지로 빛나는 안광 한 번 번뜩일 때 힘든 로동이 집요하게 남아 있던 송림땅에 하루아침에 전면적자동화의 불길이 타오르고 천년 잠자던 은률과 남포의 앞바다에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대자연개조의 포성이 터져오르고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는 룡성땅에서는 1만톤프레스가 세계의 면전에 솟아오른다.

건설의 영재, 거인의 손길 한 번 닿는곳에 어제날의 허허벌판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무수한 시대의 기념비들이 솟아나고 어제는 산악을 뚫고 조국의 북변을 가로질러가는 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고 오늘은 2천리물길이 젖줄기마냥 연연히 뻗어간다.

어제는 밭을, 오늘은 논을 온 나라의 땅을 통채로 뒤집어엮어 기름진 풍년대지를 펼쳐놓았으나 이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는 한마디의 말로 대신할 수 있으랴.

세기의 위대한 령도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축원의 꽃보라인양 온 우주를 메우며 만수축원의 전파가 날아온다. 꽃바다로 일렁이는 환희의 물결이 파도쳐온다.

〈가장 위대하고 걸출하신 건축의 영재〉

천리마('92. 2 특간호)

오늘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러워마지 않는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늘높이 일떠선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대기념비들과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마을들의 새 모습!

수백만년을 헤아리는 인류력사와 더불어 흘러온 인류건축력사에서 일찌기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체건축의 대서사시적화폭은 과연 어떻게 이 땅우에 활짝 꽃피나게 되었던가.

이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배려의 결과인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로 건설하려는것이 나의 구상이며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이 몇십년을 타산하고있는 이 웅대하고 방대한 건설 구상과 작전을 속도전을 합히게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돌까지 실현함으로써 수도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여야 한다고 패기와 정열에 넘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인류건축력사가 흘러 수천수백년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그 언제 그 누가 이처럼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대중중심의 새로운 건축사상과 건축시대를 구상해본적도 없었고 실현해본적도 없었기 때문이였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

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선포하시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웅대한 건설구상이며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작전이었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마을과 함께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보다 웅장화려하게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건설구상과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작전을 또다시 펼쳐주시고 그 실현으로 전당, 전국을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마을들의 건설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주체건축의 새 시대를 찬란히 꽃피우시였다.

실로 돌이켜보면 볼수록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는 한길에서 건축분야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위대하고 찬란한 것이다.

이것은 오직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담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발견하시고 창조할실수 있는 건축사상인것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대로 인류건축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건축시대인 주체건축의 새 시대,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건축시대를 펼치시고 빛내이시는 가장 위대하고 걸출하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 건축의 영재이시다.

리 형(인민설계사·박사)

〈예지의 빛발로〉

로동신문('92. 2. 18)

〈그것은 1960년대초 우리 대학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력사학자들속에서는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옳게 해명되지 못하여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였다.

력사학계의 실태를 깊이 료해하고 계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우리 나라 력사를 철저히 주체적 입장에서 연구하도록 방법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력대의 사대주의사들과 제국주의어용사들이 우리 나라 력사를 외곡서술한것을 그대로 믿으려는 그릇된 견해를 예리하게 분석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때 함경북도 화대지방에서 털코끼리유골이 발굴된 사실과 우리 선조들이 살고있던 지역보다 더 추운 곳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유물이 발굴된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에도 구석기시대가 있었을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 순간 학자들은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우리 나라에서는 그이께서 예견하신대로 구석기시대 유물들을 여러곳에서 발굴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삼국시기에 대한 외곡된 력사기록들도 주체적인 립장에서 새롭게 밝혀내도록 이끄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것처럼 오랜 세월 인멸되고 외곡되었던 우리 민족사가 새롭게 정립되어 선명하게 부각되게 되

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며 비범한 예지로 우리 민족사를 빛내여주시는가 하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나라와 세계의 먼 앞날까지 명철하게 내다보시며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들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여 사전에 만사를 훌륭히 풀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사태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해결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에는 한계가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의 가슴을 끝없이 부풀어오르게 한다.

우리는 오랜 민족사로부터 먼 앞날의 후손들이 걷게 될 길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도덕적품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가정의 생활로부터 인류공동의 위업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예지로 뚜렷이 밝혀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2월의 경사로운 명절에 즈음하여 크게 벌어지고있는 세계적인 경축행사들에서 울려나온 찬사와 축원의 목소리들은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는가.

얼마전에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학교수가 제자들에게 (김정일비서와 같으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행운이며 행복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것도 실은 그 혼자만의 심정만을 토로한것이 아니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는
백전백승의 감철의 령장이시다〉

천리마('92. 4. 15 특간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군사의 위대한 령장이시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무엇보다도 비범한 군사적예지를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다.

군사적예지의 비범성은 군사적인 안목과 식견,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과 선견지명에서 나타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어떤 기성관념이나 사상리론에도 구애됨이 없이 모든 군사문제를 주체적인 안목과 식견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나가신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시대의 진로를 밝히는 천리혜안의 예지, 복잡다단한 현대정치정세를 종합하고 예리하게 꿰뚫어볼줄 아는 비범한 통찰력과 도래할 사태를 내다볼줄 아는 선견지명, 참으로 령도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지니고저 하는 그 모든것을 천품처럼 타고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예지의 화신입니다.》라고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리론을 주체의 군사학으로 정식화하시였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완성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군사학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핵으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수령중심의 군사학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다음으로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군사
위대한 령장이다. 높은 령군술을 지닌 령도자만이 군건설과 군사
활동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솜씨있게 풀어나가면서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수 있다.

뛰어난 령장의 슬기를 한몸에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는 탁월한 령군술로 우리 혁명무력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령
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령군술의 본질적특징은 군인대
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군사문
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의 령군술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모든 군사활동을 별려나감에 있
어서 물질기술적수단을 보기전에 먼저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 군인
대중부터 보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
어나가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선 혁명무력건설의 매 시기, 매 단
계마다 정확한 건군방침과 투쟁구호를 내놓으시여 군인들을 불러일
으키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
쳐 싸우자!》,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김
혁, 오중흙동지를 따라배우자!》, 《훈련도 전투다!》 등 수많은 건군
방침과 구호를 제시하시여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그들을 주체의 군건설위업완성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는 다음으로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맞받아나아가시는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령장으로서 지녀야할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다같이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지략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신묘한 수로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지략이다. 이 지략은 적보다 한수, 두수, 세수 더 내다보거나 적보다 선손을 쓰거나 단 한수로 적을 쥐락 펴락하는데서 표현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지니신 지략은 또한 천변만화하고 령활무쌍하는 전술로써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음흉한 기도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립기용변의 지략이다. 이 지략은 복잡다단한 정황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는데서, 급변하는 정황에 맞게 다양한 요책으로 적을 움작달짝 못하게 하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군사적 지략만이 아니라 무비의 담력으로 적들을 맞받아나아가 용맹을 떨치도록 하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담력은 그 어떤 강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연자약이며 대군이 달려들어도 주저없이 맞받아 과감히 들진해나가는 결단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담력은 지금까지 감행된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과 수많은 전쟁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인민군대의 위용을 만천하에 시위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

나였다.

5천년의 인류력사는 지구상에서 벌어진 1만여차의 크고작은 전쟁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명장들의 이름을 남기였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력사에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처럼 빛나는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다같이 완벽하게 겸비한 그러한 위대한 령장은 일찌기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정치사업방법으로 군인대중의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신다.

군인대중을 움직이는 직접적수단은 명령이며 군사활동은 명령으로 시작되고 명령으로 끝난다. 그리하여 동서고금의 명장들은 모두 다 명령집행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명령을 집행하는것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인것만큼 명령에 앞서 정치사업을 하여야 군인대중이 자각적으로 떨쳐나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진리에 기초하여 명령을 내리심에 앞서 그 목적과 의의, 수행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군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다.

리능훈(김일성정치대학 부총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로동청년 사설('92. 4. 25)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키워주신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믿음직한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시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을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건군위업을 튼튼히 고수하시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걸출한 군사외 영재이시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올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당과 수령의 군대, 조국과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가장 혁명적인 군대,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영원히 강화발전될수 있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끝없이 승승장구하고 빛나게 계승완성될 휘황찬란한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은혜로운 사랑은 어린이 식료품에도〉

로동신문('92. 6. 9)

여러차례에 걸쳐 콩우유의 시험생산정형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날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제품의 질을 료해 하시였다.

《이번에 새로 만든 콩우유는 젓소에서 짜는 우유보다 더 감칠맛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다 좋아할것 같습니다.》

일군들의 이러한 소감을 듣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유에 못지 않단 말이지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충격으로 가슴이 몽클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쌀밥에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먹여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는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부모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시여 새롭게 생산한 식료제품에 대한 보다 광범한 군중의 의견을 들어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자고 말씀하시니 자식을 낳아키우는 친어머니의 사랑을 천으로, 만으로 합친다 한들 어찌 이 위대한 사랑에 비길수 있겠는가.

〈인민군 군인들을 위하시는 아버지 사랑〉

로동신문('92. 6. 23)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군 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우고 계신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서 갑문건설장의 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우선 관심하신 문제는 언제를 쌓는 군인들에게 식사는 어떻게 보장하여 주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하루 세끼 다 병영식당에서 급식을 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지금은 공사장까지의 거리가 그닥 멀지 않기때문에 식당까지 왔다갔다할수 있지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불편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언제건설장말고도 식당과 거리가 떨어진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많겠는데 어떻게 하면 식당까지 걸어다니지 않고도 전사들에게 하루 세끼 더운밥에 더운국을 먹일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후였다.

갑문건설장에 수십대의 식사운반용 특수차가 도착하였다. 얼마전에는 잠수작업을 하는 군인들이 밤낮 바다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겠다고 하시며 일체 생활조건이 다 갖추어진 여러척의 생활부선을 만들어 보내주시더니 이번에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위해 식사운반용특수차까지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아버지사랑에 접하

여 전사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갑문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진촬영에 참가하여야 할 두명의 군인이 오지 못하였다. 그들은 20리나 떨어진곳에서 일하고있었던 것이다. 그들을 데려오느라면 예정된 사진촬영시간이 늦어질수 있었기때문에 일군들은 그들을 내놓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곧 배를 보내어 그들을 빨리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은 자기들에게 어떤 영광이 차례졌는지 모르고 맡겨진 작업에 열중하고있을 그들을 어떻게 하나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 내세우고싶으시였던 것이다.

두 병사가 사랑의 배에 실려 현지에 도착한 그때 온 사진촬영장에는 세찬 걱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해빛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병사들의 두볼을 적시며 뜨겁게 흘러 내린것은 위대한 령장이시고 위대한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인민군군인들이 안겨살고있다는 환희와 걱정의 눈물이였다.

나. 김정일 서한 및 문헌을 통한 업적 찬양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회답서한을 보내주신 1돌 기념보고회〉

로동신문('91. 11.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0년 11월 1일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역사적인 회답서한을 보내주신 1돌 기념보고회가 10월 3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출판보도부문의 한 인테리집단이 올린 이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친히 역사적인 회답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온정을 베푸시었다.

〈2세포당원동지들에게

동지들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나는 동지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를 받은 나는 힘을 더 내어 당원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확인하는바입니다.

동지적인 인사를 보내면서 김정일 1990. 11.1〉

만사람을 끝없이 격동시킨 이 불멸의 회답서한은 혁명의 한 길에서 동지적 의리와 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우리 당중앙과 인민대중사이의 혈연적관계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지도자와 전사들간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또하나의 불멸의 서사시를 수놓았다.

보고자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직접적담당

자들인 기자, 편집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는 충성과 효성을 다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문헌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로동신문('91. 11.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5일 사로청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서한은 청년운동과 청년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집대성한 위대한 청년운동강령이며 현시기 혁명적청년조직들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있는 사명과 임무,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명시한 지도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성지구 과학자, 기술자들의 쫓기모임〉

로동신문('91. 12. 1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성지구 과학자, 기술자들의 쫓기모임이 14일 과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혁명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과시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며 비상한 탐구정신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분발하여 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테리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내세워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문학 창작사
전체 동지들에게 회답서한을 보내주신 1돌 기념 보고회〉

로동신문('91. 12.2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0년 12월 27일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에게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보내주신 1돌 기념보고회가 26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불멸의 회답서한에는 작가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테리들을 우리 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는 인간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그들을 내세워주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으로 지난 1년동안에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전적으로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을 떠난 충실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작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 고매한 공산주의적품성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는데 모든 창작적 탐구와 사색을 기울일데 대하여 그는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위대한문헌〉

—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92. 2. 6)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헌에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론증하신것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휘황한 전도를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신 역사적공적으로 된다.

문헌은 우리 인민이 걸어온 사회주의건설의 백전백승의 역사에 대한 찬란한 기록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총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자랑스러운 총화이다.

문헌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사회주의위업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사소한 우여곡절과 편향도 모르고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올 수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

이 문헌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 오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공산주의 건설대강이다.

〈김정일동지의 로작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발표 30돌 기념 전국대학생들의 연구토론회〉

로동신문('92. 2. 2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발표 30돌기념 전국대학생들의 연구토론회가 2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로작은 학교교육의 마지막과정인 대학기간에 학생청년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불멸의 기치로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이 대학생청년들을 참다운 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서적인 로작이며 모든 대학생청년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위대한 강령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할 데
대하여 말씀하신 1돌 기념보고회〉

로동신문('92. 5. 2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1년 5월 23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1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었다.

보고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하여 오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을 친히 발기하시고 영화의 종자와 주제, 주인공설정과 음악배합 등이 영화를 세계적인 걸작으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문예사상의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속출되었으며 훌륭한 음악형상과 연출, 촬영, 미술형상 그리고 창조사업에서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우고 속도전을 벌린데서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는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문예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그 실현으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으며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다. 언론매체를 통한 충성심 제고 촉구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다〉

로동신문('91. 12. 2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다. 이번의 경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자기의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인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로 된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의 앞길에는 끝없이 휘황찬란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충성심은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군 주체사상화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무력건설의 기본로선이 명시되었으며 이 구호를 관철하는 행정에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주체의 군사 사상과 리론, 전법이 철저히 구현되어 인민군대가 주체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한생을 충성의 길에서 살며 싸워나가며 자기의 령도자를 견결히 옹호보위

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려는것은 우리 인민군인들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충성의 한길로 나아가려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조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수위에 높이 모시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이다.

〈사회주의위업을 백전백승의 길로 이끄는 위대한 혁명적기치〉

로동신문('92. 2. 5)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접하게 되었다.

위대한 문헌을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옹호자, 로속하고 정열적인 세련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가장 공고하고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은 정세가 어떻

게 변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한결음도 물러섬이 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은 혁명하는 인민들에게는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는 위대한 고무적기치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력사의 온갖 반동들에게는 철추를 내린 혁명의 위력한 무기이다.

자주시대의 전진운동에 주는 영향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이처럼 위대한 문헌을 수많은 발표하시여 인류와 시대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전도를 펼쳐주시는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 세련되고 로숙한 령도자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가장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혀 주신 사상과 리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존엄있는 나라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 혁명위업의 불패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우리 인민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혁명함으로 하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투쟁함으로써 인류의 최고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민족적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기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끝없는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그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 당중앙을 견결히 옹호 보위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을 또다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영광은 비길데 없이 크며 당을 따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은 더욱 확고부동해지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크나큰 금지를 더욱 깊이 간직하자〉

로동신문('92. 2. 8)

우리 인민은 오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심과 힘의 원천은 주체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인 우리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를 받는데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금지를 깊이 간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양양을 이룩

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고 혁명할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몸과 마음을 다바쳐 우리 당 중앙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오늘의 번영과 더 큰 미래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당중앙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대렬이 튼튼히 꾸러지고 당안에 주체사상만이 팍 차 넘치게 되었으며 당과 혁명 대오의 사상의 지적통일이 강화되고 당안의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율이 철저히 확립되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원천이며 우리 민족의 끝없는 룡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의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하고있고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가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실천투쟁으로 당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당이 이룩한 업

적에 대한 교양을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한가지 자료를 가지고 교양사업을 하여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영예와 특전〉

조선문학('92.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건설하는 사업도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리론,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는 수령의 후계자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이 우리 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영예와 특전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 개척자의 영예를 더

옥 빛내일수 있게 되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 영예를 지님으로써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 건설에서 또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의 계승자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도 개척자의 영예를 계속 지니게 되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사상과 이론의 위대성,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덕성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리는 영예를 계속 누리게 되었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빛나는 모범을 남길수 있게 되었다.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영예롭고 숭고한 창작사업이면서 또한 미학실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 뜨겁게 고동치고 있는것은 우선 위대한 향도성을 모신 우리 인민의 환희와 긍지, 흠모의 감정이다.

이 전인민적인 환희와 긍지, 흠모의 정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는것은 시가문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주체위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지도자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전인민적감정을 노래하는데서 명가사들이 많이 창작된것은 특기할 사변이며 경사이다.

가사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김정일화》, 《그 품 떠나 못살아》, 《사랑의 미소》, 《남해가의 붉은 꽃》, 《빛나라 정일봉》 등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많은 명가사들이 창작되었다.

이 명가사들은 한결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신념과 의지, 념원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풍부한 서정속에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 창작은 소설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크고작은 형식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장편소설에 담아 서사시적화폭속에 깊이있게 보여주는 작품들이 훌륭하게 창작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는 때에 최근에 장편소설 《불구름》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이 창작되어 세상에 나옴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환희롭게 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후계자로서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벌리신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의 전로정이 힘있게 실증해주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로, 조선의 향도성,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월한 령도자의 풍모를 다 겸비하시고 실로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의 위대한 자욱을 시대와 력사 앞에 력력히 새겨놓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효성으로 일관된 력사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력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대오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시며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빛내여나가는 영명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또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의 력사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위업의 후계자의 빛나는 귀감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형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러자면 위대한형상전반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뜨겁게 체현시킴으로써 충신과 효자의 참다운 귀감, 수령의 후계자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살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정치는 인류의 정치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인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승고한 정치의 본보기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기 위한 작가의 사상미학적준비에서 기본은 지도자동지에 대한 깨끗한 량심을 가지는것이다. 그것은 주체위업의 향도성이시며 우리의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 매혹에서 부터 우리나라오는 순결한 마음이다.

이러한 량심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여야 작품에 작가의 매혹된 녀이 뜨겁고 진실하게 체현될수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풍모를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청년들은
‘혁명선렬들이 싸우던 그때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자〉**

로동청년 사설('92. 3. 6)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물지 않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그 이의 령도는 우리 당의 생명이며 사회주의 위업의 운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물지 않는 신념을 가지는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지난날처럼 혁명적으로 일하며 살아나가기 위한 가장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

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그 이의 두리에 더욱 철통 같이 일심단결하여야 하며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로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당중앙만을 쳐다보고 그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로동청년 사설('92. 3. 7)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주체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고귀한 전통이 혁명의 장구한 기간 빛나게 이어져왔다. 오늘 혁명의 3세대, 4세대인 우리 청년들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그대로 지니고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또 한 분의 현명한 수령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조국을 통일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이 땅우에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오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영예로운 사명이며 임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며 뜨겁고 변심없는 공고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충실성을 철저히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우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철저히 신

념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한다는것은 지도자 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확고한 결심과 사상적각오를 가진다는것, 다시말하여 충실성이 확고한 사상의 지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이 있고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그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다는것을 심장깊이 명심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태양으로 끝없이 신뢰하면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하늘 땅의 끝까지라도 따르려는 확고부동한 사상적 각오와 결심, 철석같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 다진 자기의 충성의 각오와 맹세가 그 어떤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오고 그 어떤 역경이 부닥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하여야 한다.

충실성이 참다운것으로 되자면 그것어 신념화될 뿐 아니라 량심화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한다는것은 지도자동지를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깨끗한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는것을 말한다.

청년들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화한다는것은 지도자 동지를 자기 운명의 온인으로, 아버지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지도자

동지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청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우리모두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보살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은인이시며 우리들의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시라는것을 잘 알고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지키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과 효성을 다해 진심으로 우러러모셔야 한다.

청년들은 다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철저히 생활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한다는것은 충실성을 일상생활속에서 공고화하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을 말한다. 일을 할 때나 회의, 학습을 할 때나 걸음을 걸을 때나 밥을 먹고 휴식을 할 때나 늘 어떻게 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시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그것을 실천해나갈 때 충실성이 생활화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모든 청년들은 매일 매 시각 언제 어디서나, 자나깨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실 생각,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릴 생각으로 가득차있어야 하며 그 생각이 곧 실천에 구현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자기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아득바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철저히 신념화하고 량심화하며 도덕화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지도자동지의 제일충신, 제일효자가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사로!〉

로동신문('92. 7. 6)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일당백초병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다. 그 어느 초소에서나 우리의 일당백초병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선인민경비대 남국삼동무소속부대의 35명 군인들은 제대를 앞두고 국영11월10일청년농장에 집단진출할것을 탄원하였다.

사관장 황창일동무는 전문학교 추천을 받았다. 그는 전문학교추천을 받던 날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중한것인가를 알았으며 그 품을 어떻게 지켜야하는가를 알았다.

그는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당에서 바라는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황창일동무는 부대정치부를 찾아갔다.

그는 책임일군에게 말하였다.

〈나는 비록 군복을 벗는다고 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 살며 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생울당의 구상을 꽃피우는데 바치겠습니다. 나를 간석지농장에 보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간석지가 개간되고 거기에 새농장이 생기고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새로 생겨나는 간석지농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대장 최명호동무는 정치부에 찾아갔다. 그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재대되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가는것도 좋고 고향에 가는것도 좋지만 새 주인들을 부르는 간석지농장으로 가는것이 우리청년들의 도리이고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간석지농장에 뿌리를 내리고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꽃피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분대장 최성희 동무는 평양에 있는 전문학교에 추천받았다. 그의 집은 평양에 있었다. 평양에 있는 부모들이 또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최성희동무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로서 어떤 길을 걷는것이 보다 보람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평양에 있는 부모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집안에 쌀이 넉넉해야 살림살이걱정이 없는것처럼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나라가 부강하고 인민들이 잘살게 될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대의 많은 군인들이 제대되면 간석지농장에 진출할것을 탄원하였습니다.

나도 간석지농장에 진출하여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가 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 딸의 결심을 지지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남국삼동무소속부대 35명의 군인들이 국영11월10일청년농장에 진출할것을 탄원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실현시켜주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집권당 건설 경험과 업적을 깊이 체득하자〉

천리마('91. 11)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문헌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심오히 분석총화하고 혁명적당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 길을 밝힌 불후의 기념비적 로작이다. 우리는 강령적문헌을 깊이 학습하여 우리 당건설의 경험과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로작을 깊이 학습하여 우리 당의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경험과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에는 일부 나라들에서 당이 붕괴된 원인과 교훈,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명철하게 밝혀져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당들의 붕괴된 교훈에 대한 로작의 사상을 학습하는데서 령도의 계승문제에 대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된 원인과 책임은 일반당원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령도의 계승성을 옳게 보장하지 못한데 있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적령도의 계승문제가 훌륭히 해결됨으로써 사회주의집권당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근본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가 빛나게 개척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로작학습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그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건설의 경험과 업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귀중한 당건설리론을 내놓으시여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라. 김정일 명의 감사(문) · 선물전달을 통해 관련 단체 및 개인들의 충성 유도

〈평양 창전인민학교 로당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1. 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다음과 같은 친필로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40여년간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로당원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창전인민학교 로당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말하면서 이것은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교원혁명가들에 대한 더없이 값높은 신임과 사랑의 표시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영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후대교육사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워낼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두 세포 당원들에게 회답서한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1. 2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결의모임이 28일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학습방법을 따라배워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20대, 30대에 준박사, 박사로서 자라나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장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4. 24)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돌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장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의 선물에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을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의 굳건한 수호자로 내세워주는 크나큰 믿음과 모든 군인들이 앞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충성을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경비대가 충성의 대오, 백전백승의 강철이 대오로 자라나게 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군사의 걸출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창건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4. 27)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공화국원수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병식이 아주 잘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전체 열병식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번 조선인민군 창건 60돌경축 열병식행사가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준비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군인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끝까지 관철하는 충신과 효자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이 진행되는동안 참가자들은 당기발과 공화국기발, 붉은기를 흔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자!》, 《김일성》, 《김정일》, 《일심단결》등의 구호를 힘차게 합창하며 충성을 맹세하였다.

〈량강도 인민병원 의료 일군들에게 감사찰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5. 23)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면서 있는 정성을 다하여 인민군전사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킨 량강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게 감사찰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감사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결의모임이 20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웅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말하고 이것은 량강도인

민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정치적 신임의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는 선진적인 보건정책을 실시하시여 고산지대인 량강도에서도 인민들이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끝없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우시광산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2)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짧은 기간에 지하파쇄장을 건설하여 광물생산을 늘일수 있게 한 우시광산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결의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용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분에 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신것은 크나큰 믿음과 정치적신임의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의 본분이며 외리이라고 하면서 새로 조업한 지하파쇄장이 크게 은을 내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전연구분대 군인들 속에서 예술공연활동을 벌린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연구분대 군인들속에서 예술 공연활동을 벌린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2일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군인들을 위하여 전례없는 큰 규모의 학생소년예술단을 무어주시고 그 활동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서와 예술소조원들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함북조선소 연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6일 대형화객선 《만경봉-92》호를 돌아보시고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대형배를 매우 짧은 기간에 훌륭히 무어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

며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배를 최상의 수준에서 무어내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배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였으며 배무이전투기간 로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연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업소를 현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배무이공정의 기술장비를 더욱 완비하고 선체조립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장풍군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9)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개성시 장풍군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며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장풍군 근로자들의 결의모임이 8일 군문

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을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이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장풍군이 전국의 앞장에서 제일먼저 군민일치모범군칭호를 쟁취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광산, 탄광개발 후보지들을 마련하는 데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12)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광산, 탄광개발후보지들을 마련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허천지질탐사대, 신흥지질탐사대, 법동지질탐사대, 태탄지질탐사대, 유선지질탐사대 등의 탐사대원들과 일군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전달하며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결의모임이 현지들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탐사부문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광산, 탄광 후보지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사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모든 성과는 언제나 탐사대원들을 공업의 척후병으로 내세워주고 적극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어은병원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20)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준공된 어은병원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선물전달식이 19일 어은병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이 귀중한 선물을 받아안게 된 기쁨과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며 참다운 충신, 효자로 튼튼히 준비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달식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인민군대를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21)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국가계획위원회, 건재공업부 등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창건 60돌을 끝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뜻깊게 경축한 그들은 조국보위 초소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일당백용맹을 떨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을 찾은 평양시가정용품도매소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갈 역군으로 준비해가고있는 원아들에게 뜨거운 정성이 깃든 26종에 6,000여점의 위문품을 안겨주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잘하는것으로써 자기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배려에 보답할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일군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6. 25)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출판물발행 보급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일군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24일에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출판물발행보급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활발히 진행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권위와 위신이 날로 높아가는 현실에 맞게 출판물수출입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 출판선전일군으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적극 선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향력과 견인력을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안주시 연풍고등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8. 7)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체육교육을 잘하고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학생들의 체력증진에서 성과를 이룩한 안주시 연풍고등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에는 우리 교육일군들과 학생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해외동포영접부 일군들과 대성요업공장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8. 14)

우리 당과 인민들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수도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적극 도와준 해외동포영접부 일군들과 대성요업공장 종업원들에게 감

사를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도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적극 도와준 해외동포영접부 일군들과 대성요업공장 종업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들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함으로써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8. 20)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과학기술통보사업의 현대화에서 성과를 거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는것은 과학자들의 성스러운 의무이라고 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크나큰 사랑

과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금성간석지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인민군군인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8. 24)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금성간석지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리태일동무소속부대 군인들과 종업원들, 지원자들
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현
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웅당해야 할 일
을 한 자기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고 온정어린 배려를 돌려주신것
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표시이라고 격
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는 한 이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
서 토론자들은 충성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벌려 1차 물막이 공사를
올해안에 결속짓고 금성간석지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확고한 결의
를 피력하였다.

〈전국렬사가족대회에 참가하였던 104명의 련사가족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로동신문('92. 10. 6)

생일상을 받아안은 련사가족들은 행복에 겨워 심장이 뛸뛰는 이 시각에 솟구치는 걱정을 억제할길 없어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행복한 자리에서 련사가족들은 련사들의 대를 이어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을 다할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웠다.

함경남도운수관리국 부부장 최해성은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부모들도 차려줄수 없었던 생일상을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시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하고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였다.

그는 다 자란 자기들의 생일도 잊지 않으시고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진정 우리들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고 하면서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충신과 효자로 살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에 참가
하였던 교원들에게 진감상과 환감상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92. 10. 18)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에 참가하였
던 교원들에게 진감상과 환감상을 보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근 20년전 대학에 찾아오시어
교원들은 《숨은 노력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던 그때의 일
을 감회 깊이 회고하면서 손창수는 웅당한 일을 한 전사들을 끝없
이 내세우고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은정
에 대를 이어 조국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보
답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리상기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생일상이란 말조차 모르던 자기가
당의 배려로 환감상을 받고보니 정말 꿈만 같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우리모두의 은인이시고 어
버이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전군주체사상화의 한길에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
을 결의하였다.

마. 백두산밀영 답사를 통한 찬양

〈주체의 혁명위업 만대에 빛내리〉

로동신문('92. 1. 19)

답사자들은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을 돌아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은 온 겨레에게 크나큰 환희와 기쁨을 안겨준 민족의 대경사이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말하면서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국의 밝은 미래가 열려진데 대하여 크나큰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뜨겁게 느끼고 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높이 칭송하고 있다.

전국의 사로청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청년군인들,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신원고등중학교와 강원도 회양군 기정고등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재일조선인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새 세대들이 백두산밀영을 답사하고 충성의 결의모임, 회상실기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자기들의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백두산밀영에서 전국 청년학생들의 량송모임 진행〉

로동신문('92. 2. 1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리르며 따르는 전국청년 학생들의 시랑송모임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 고향집뜨락에서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은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여 일찍부터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불굴의 의지를 키우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을 절절하게 구가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영광과 공지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철석같은 의지와 결의를 감동적으로 피력하였다.

아 우리러 숭엄한 강철의 령장!
로속하고 세련된 군사의 대가!
그 안광 한번 누리에 번쩍이면
그 어떤 강적도 기가 꺾이여 주저앉고 말려니
그이의 령도따라 가르치심따라
우리 언제나 백전백승하리라.

<축원의 달빛 밝은 백두산 밀영>

로동신문('92. 2. 17)

《고향집에 달이 뜨면 우리 막 환성을 올린답니다. 꼭 친한 동무를 만난것처럼 너무도 반가워서요... 그리고 눈덮인 고향집에 뜬 저 달을 보면 이 아름다운 경치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런 달밤이면 친애하는 그이께서 금방 고향집에 오실것만 같아 가슴이 울렁거린답니다. 밤마다 저 달이 지지말고 저렇게 떠있었으면 하는것이 소원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처녀강사의 눈에 뜨거운것이 반짝이었다.

백두산밀영의 달, 하고 생각하니 우리의 머리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이 밀영의 달을 그려보며 나무에 새긴 글발이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늘중천에 뜬 밝은 달아

달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다듬어

천상에 왕궁을 짓고

항일대장 김일성

녀장수 김정숙

백두광명성 천만년 모시자 1942년》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한 실로 숭고한 념원이 담긴 글발이다.

수천년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과 함께

간절한 소원을 속삭여왔던가.

하지만 그 모든 소원을 하나도 이룰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었다.

우리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맞이하여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창창한 미래를 가지게 되었다. 주체 조선의 위력이 누리에 펼쳐지게 되었다.

이런 감흥에 잠기니 백두산밀영의 달이 참으로 유정하게 바라보이였다.

〈「백두광명성」을 받드는 인민의 흠모〉

로동신문('92 2. 24)

《은하수빛 흘러간 길을 따라서 어서빨리 보고싶은 백두성 찾아가자》

읽을수록 절절한 흠모의 정 어려오고 혁명적정서가 넘쳐흐르는 이 글밭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씌여진 구호문헌이다.

저술령에서 발굴된 구호문헌은 임무를 끝내고 사령부로 돌아가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동무들, 지난 2월에 백두산밀영에서 2천만 우리 민족의 대경사가 났소. 천출명장으로 칭송되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함과 숭고한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녀장군의 충효심과 고결한 뜻에 받

들리워 참으로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또 한분의 장군이 탄생하시었소. 백두산밀영에 있는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북방의 훈련기지에서조차 환성이 터져올랐고 온 나라 인민이 백두성, 광명성의 탄생으로 칭송하면서 감격에 넘쳐있소.》

투사들은 자기들도 민족의 경사를 나무에 새겨 온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었다.

투사들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 이를 백두성, 태양성, 광명성으로 칭송하고있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백두광명성》이라는 별칭을 지어드리기로 하였다.

백두광명성!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을 맞이하여 환희에 휩싸인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조직성원들, 애국적인민들의 간절한 념원과 소망이 담긴 이 별칭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백두〉라는 두 글자에는 세가지 의미를 담았다. 우선 여기에는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의 승리가 마련되는 때에 탄생하시였다는 지명과 력사적시기를 담았다. 그리고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탄생하시였다는 뜻을 담았다. 백두산은 조선의 조종의 산이고 우리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혁명의 책원지이다. 따라서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탄생하시였다는것은 곧 조선의 녀과 슬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탄생하시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함께 우리는 〈백두〉라는 두 글자에 위대한 수령님의 자력독립의 사상을 담았다. 그것은 백두산은 곧 조선혁명의 상징으로 되느니만큼 〈백두〉라는 글자에는 웅당 우리 힘으로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광명성〉이라는 글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님의 뜻을 이어 조선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는 또하나의 찬란한 태양이 되여달라는 전체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담았다.

그후 소부대성원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구호들을 자기들의 활동구역에 써놓았다.

《조선의 백두광명성 만세》

《동서고금 천상천하없는 세계의 위인들을 여기에 새긴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조선사상에 대통운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모신것이고 백두항일녀장수 김정숙장군을 모신것이고 백두광명성을 모신것이다 3대통운 만만세》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고 흠모하는 구호문헌을 쓴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니였다.

만민의 환호와 끝없는 흠모를 받으시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 울리는 준엄한 역사를 체험하시며 성장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사상리론의 영재》, 《령도 예술의 거장》,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령도자》로 칭송받고계신다.

민족의 위대성은 곧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령도자가 위대하여 그 나라, 그 민족, 그 인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며 인류문명에 공헌을 하고 자기의 존엄을 빛내는 것이다.

바. 김정일찬양 문학작품(시, 노래)발표

시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조선문학('92. 2)

창문가에 피였네 김정일화
거리에도 피였네 봄맞이 꽃이
향도의 밝은 태양 찬란히 솟은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송이송이 홍매꽃 향기 풍기고
아름다운 만수국 금빛 뿌리네
향도의 밝은 태양 찬란히 솟은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봄, 여름에 피는 꽃 2월에 피고
가을 한철 피는 꽃 2월에 폈네
향도의 밝은 태양 찬란히 솟은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옛 주인의 발자욱소리〉

조선문학('92. 2)

구구한 세월
기다린 세월
구름이 떠가고 흘러오고
흰안개 오르고 내렸네

소백수 물소리도
류달리 맑은 그날
사자봉 어귀에서 발자욱소리
정일봉 오르는 발자욱소리

오시는가
정녕 오시는가
내리닫던 소백수도
막아선 바위에 무릎을 꿇듯
어푸러지고
뛰어내리고
룡마바위 너도
푸른 날개 뿔았으리

산정에서
기슭으로

밀림도 달리다 멈춰버린듯
눈시울 습벽이는 경위대원들처럼 서있었으리

구름도
안개도
어디론지 가버린
그 어느 여름날

어리실적
뜨락의 눈우에
또렷하니
작은 발자욱 남기신 그이

오늘은 령장의 자욱 찍으시며
그이 오시네
조국땅 끝에서 끝까지 다 들고
늦게야 그이 오시네 ·
백두의 뜻대로
인민이 받드는 .
나라의 향도성 되여
고향집에 오시니

온 천하를 진동하는
옛주인 발자욱소리

크나큰 발자욱소리에
백두고향 산천이 한껏 들먹이였네.

〈만년초석우에〉

조선문학('92. 2)

집이여
너로부터 흘러간 저 무수한 골짜기를
너로부터 이어진 저 수만갈래 길들
력사의 갈피갈피로
저 멀리 펼쳐져있구나

뜨락가에 앉은
저 푸른바위우에 널려있었으리
압록의 물에
이슬길에 젖은
군복과 행건들...

고향집 정원수처럼
송라를 드리운 저 분비나무에는
소백수에 먹물을 풀어쓴
어렴풋한 글자들...

집이여

너를 병풍처럼 둘러싸기도 하고

층층 고임돌처럼 누운

저 봉우리들에는

흰눈을 붉게 물들인

선렬들의 자취뿐이리

집이여

너의 정원수와 푸른 바위들

너의 뜨락과 오솔길들

조국광복의 뜻으로 엮어진

집이여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어낼수 없는

간고성의 탑우에

너의 지붕 얹혀있고

백두성지를 만년초석으로 덮고있어

집이여

너로부터 받아안은 인민의 낮은

영원히 흔들림 없으리

〈내 그림던 정일봉 기슭에서〉

조선문학('92. 2)

어느 봉일가
그리움을 안고 한굽이
사자봉 기슭에 에도는데
저기 물촉새 한마리 내려앉는곳
저 봉일가

소백수골 잔잔한 굽이에 돌아앉은
봉이하나...
물녘에선 봄날같이 흰김이 서려
꿈같은 마을이 나설듯

저 봉이에 가지 드리운
그 어느 나무 등결에 안겨도
부드러운 숲새에 잠겨
어느새 고요히 잠들듯
자애로움이 어려오는
봉우리

나를 굽어보는 봉우리
창공에 엄엄히 솟은
정일봉이여

너의 품속에 안겨있구나
엇갈린 가지새로 열려보이는
귀틀집 작은 띄창...
동기와지붕에는
항일전쟁의 포연속에 날리던 붉은기발

홀려 반세기
만고풍상 다 겪으며
밀영의 소중한 저 모습을 간직해온
붕이여

어느해 여름날 태풍이 불어
너의 산줄기에서 강대들이 쓰러지고
천고의 원시림 그루채 뿔뿔히우며
천만산악이 아우성일 때
붕이여
너만은 곳곳이
그 절개높이
백두의 고향집을 안아지켜냈구나

네 그리도 억세게
귀틀집 터전을 그러안고
네 그리도 정답게
고향집 향기를 고이 품고

이제나
저제나
간절히
소백수 깊은골에서
오늘을 기다려왔으니

봉이여
너에게 그 어떤 감사의 표시를 안기랴
그 어떤 송가의 구절로
너의 위훈에
값높이 노래를 지어줄수 있으랴

그 이름
온 세상 사람들 따르며 우러르는
그 이름
봉이여
너에게 주고싶더니

그이름 정일봉이라고
너의 산정에 이름이 없어질적에
봉이여, 너의 환희에 겨운 터뜨림
저 소백수물결에 내려
백두고목들이 뿌리를 흔들었으리

너의 그 환희
저 수림의 파도에 실려
행복의 이슬을 머금은 새무리를
구만리 창공에 날렸으리

봉으로
오를적에는
그 누가 보련듯
조용히 돌아앉아 요람을 지키는
어머니 모습

다시 돌아보면
창검을 세워진 령장인듯
태양의 역사를 수호하는
정일봉

너는
조국과 민족 앞에
가장 겸허하시고
가장 강의하신
위대한 지도자의 친근한 모습으로
이 아들을 따뜻이 품어주며
한없이 그림던곳에 솟아있구나

〈2월의 아침에〉

조선문학('92. 2)

하늘높은 백두산정에 새별이 솟아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의 빛을 뿌린
2월 16일

민족의 미래 한품에 안으시고 탄생하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계시여
조국은 영원한 청춘기를 맞이했노라

쌓으신 위엄은
하늘에 닿고
떨쳐주시는 민족의 존엄은
온 누리를 진감하노라

둘러보아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대기념비들
인민의 행복 넘친 밝은 모습
삶의 향기 차고넘친 내 나라
우리의 지도자동지 계시여
주체조선의 오늘과 래일이 있어라

친애하는 그이 계시여

지구우에서
그 어떤 진눈까비 휘몰아쳐도
주체조선의 위업 만방에 우리르고
조국은 무비의 영광 떨치며
사회주의 한길로만 나아가나니
축하를 드리노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민이 우리르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받들어모시는 영광으로
가슴불태우며
민족이 축복받은 영광의 날
2월 16일 이 아침에
심장을 불태워
충성의 맹세 다지노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손잡아이끄시는 영광의 길에
물불을 가리오리까!
생사를 가리오리까!
목숨으로 받들어
오직 달리오리다!
한생을 달리오리다!

그 맹세 그 진정을 담아
삼가 이 아침 축원의 인사드리웁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부디 만년 젊어계시라!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조선예술('92. 2 특간호)

간절한 우리의 마음처럼
절절한 우리의 소원처럼
해빛밝은 집집의 창가마다
붉고 붉은 김정일화 활짝 피어나는
경사로운 2월의 명절날 아침

누리에 향도의 해빛을 뿌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흙모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천송이 만송이로 활짝 피어나
축원의 꽃바다로 설레입니다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리면
충신들의 그날의 환희를 안고
우러러모신 영광

따르며 받드는 행복을 안고
백두밀영의 고향집 트랙으로
나래쳐가는 우리의 마음

백두의 청청한 기상을 안으시고
솟아오르시여 영광의 반세기
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밝히시는
그 찬란한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감사와 축원의 노래를 부르나니

세월이 흐를수록 잊을수 없습니다
빛나는 예지 탁월한 령도로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을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노래 한곡 지어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으로 되는 노래
춤가락 하나 만들어도
인민이 좋아하는 춤가락 되게
다듬어주시고 완성해주시는
그 다함없는 사랑의 뜨거움을

그 열화같은 사랑의 품속에서

지혜와 슬기를 마음껏 펼치며
재능있는 당의 작가, 인민의 예술가로
자라나는 우리의 끝없는 행복이여

한없이 자애로운 그 품이 있어
쇠물을 끓이는 평범한 용해공도
풍년벌을 가꾸는 수수한 농장원도
이름난 가수로 연주가로 자라나
주체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워가거니

이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
송이송이 흙모의 꽃다발 엮어 들고
우러러 받드는 향도의 태양이여
인민의 예술을 꽃피워주시는
그 비범한 령도의 빛발이여

우리는 맹세합니다
2월의 이 아침
지구에
그 어떤 광풍이 불고
사나운 파도가 밀려온대도
우리는 영원히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고 따르겠습니다

그 불타는 맹세를 담아
강산이 설레이는 영광의 이 아침
우리는 백두의 푸른 기상을 안고
백두광명성을 만방에 자랑하던
투사들의 그 충성의 마음 안고
축원의 인사 삼가 드리웁니다
조선의 행복
조선의 영광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천만년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조선문학('92. 2)

천만전사 하나같이 붉은맹세 다지며
크낙한 그 품에 운명을 맡기었네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 한생 지켜가는 조국의 운명

우리의 행복은 그 사랑이 꽃피우고
우리의 영광은 그 믿음이 지켜주네
친애하는 그 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 한생 지켜가는 내 조국의 운명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우리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 한생 지켜가는 내 조국의 운명

〈감사를 드립니다〉

로동신문('92. 2. 9)

감사를 드립니다
꾸밈도 없고
보탬도 없는
소박한 인민의 감사
당이며, 그대에게 드립니다

살아온 나날을 생각해도 그대가 고맙고
걸어온 길을 더듬어도 그 사랑 못잊어
스스로의 가슴을 터치는
우리의 이 진정

행복에 겨워 흘린
눈물도 있습니다
철없는 시절의 웃음도 있고
매일을 보는 환희도 어려 있습니다

누구는 어머니라 부르고
누구는 스승이라 부르며
꿈결에도 찾는 그 뜨거움을 거쳐
인민이 올리는 이 감사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천만의 운명을 한품에 안고
그대가 헤쳐온 기나긴 세월을

깊은 밤 당중앙창가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볼 때면
자식들을 키우느라 지새우며
어머니 돌구시던 등잔불이 어려와
눈시울 적시는 우리의 마음
년년이 그대가 찍어온 로고의 자욱은
우리의 심장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득 검덕이란 말을 들어도
당이란 말이 가슴에 울려오고
서해갑문이란 그 이름만 들어도
당이란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인민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고
승리로 걸어온 그대의 로고를
우리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백가지 생각도 그대와 닿아있고
천가지 소원도 그대와 닿아있습니다
사랑이 그립던 인민에게 사랑을 주고
존엄이 부럽던 인민에게 존엄을 주며
번영의 시대를 열어온 당이여

그 품에 빛나는
이 존엄을 생각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에 떨치는
조국의 위력과 영예를 생각하며
인민은 그대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민족의 전성기를 안아온 당이여
주체의 진리로
조국을 빛내인 백전백승의 당이여
우리는 봅니다 신심에 넘쳐
그대의 기폭에 몰든

저 장엄한 아침노을을
통일의 문을 열어 만대에 번영할
내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아 삶의 기쁨 하늘땅에 넘치는
룡성번영의 이 시대
승리의 청춘시대를
그대의 이름과 하나로 합치며
가슴터치는 인민의 이 환희

감사를 받으시라
영광을 받으시라
생사운명 그 품에 맡기고
영원히 따르며 받들어갈
당이며 위대한 우리 당이여

〈우리의 념원〉

로동신문('92. 2. 17)

...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고를

우리 아버이가 되시여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공산주의 휘황한 앞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그 온정, 그 현명한 령도를

...

〈그 이름 영원히 부르고 싶어〉

로동신문('92. 2. 17)

...

부르면 부를수록 정답고
우러를수록 그리워지는
친근한 그이의 존함
아, 그이는 우리의 아버지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 계시여 꽃피는 조선의

오늘이 있고

그이 계시여 주체조선의

미래가 창창하거니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조국은

영원히 빛나라

...

〈수도의 어느 한 거리에서〉

조선문학('92. 5)

살랑대는 미풍에

꽃향기 목메게 풍겨오고

길가의 파아란 잔디

푸른 주단 곱게 펼쳐놓은

어느 한 봄날

씨불임으로 바뀐 농장마을 찾으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담한 일용품공장에 들리시여
소비품가지수를 늘일 방도
지배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돌아오고 계시여라

새로 일떠선 고층살림집 층층 창문들
해빛에 눈부시고
물뿌린 거리로
고운색 버스들이 분주히 오가고
아이들의 노래소리 랑랑하게 울려퍼지는
활기찬 수도의 거리

달리는 차안에서
거리를 살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부관에게 조용히 물으시여라
—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저 집이 무슨 상점인가고

닫길새 없이 드나드는 출입문
나오는 사람들 얼굴마다
기쁨이 어렸어라
장난감 들고 나오는 아이들
갖가지 부엌세간 손에 든 아낙네들…

구역직매점이라고 말씀드리자
구역직매점, 구역직매점이라...
거듭거듭 되뇌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웃음피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인민의 기쁨 그려보시는것인가
날마다 커가는
이 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인가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최고목적으로 삼는다 하시며
해별이 뜨겁게 내려쬐이던
8월의 그날에 친히 소비품전시장에 나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나라 인민들의 축원을 받으셔야 하던
2월의 생신날 하루마저
일군들과 오랜 시간
인민생활문제를 의논하시던 친애하는 그이
아, 그이께서 바치신 사랑의 나날이
오늘은 저렇듯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이 거리에 물결치며 향기 풍기거니

꽃속에 향기속에
기쁨의 열매 주렁져 무르익는
이 봄날의 한순간마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선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 계시여라!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천리마('92. 5)

위대하신 손길로 3대혁명 이끄시고
비범하신 예지로 대건설 펼쳐가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조국의 릉성번영 만대에 이루어가시네

자애로운 사랑으로 인민을 안으시고
베푸시는 은정으로 행복 안겨주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고향
인류의 새봄을 만발하게 꽃피우시네

향도의 별빛으로 남녘땅 밝히시고
향도의 별빛으로 온 세계 밝히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자주통일 주체위업 승리에로 이끄시네
아, 자주화의 한길로 세계를 인도하시네

〈삼가 만년 장수 축원합니다〉

로동신문('92. 8. 2)

하늘의 태양이 밝고밝아도
땅우엔 양지와 그늘이 있고
숲속의 공기가 맑고맑아도
숨진 목숨은 구원 못합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하나와 같이
그늘없는 해빛을 안겨주는 품
끊어졌던 숨결도 다시 이어서
영원한 삶을 안겨주는 품

아, 수령님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그 품속에 인민은 행복합니다
그 품을 떠나 우리는 못합니다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로동신문('92. 8. 2)

전승의 광장에 높이 서계신
그날의 수령님 젊으신 그 모습으로
일당백전투대오를 사열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
손을 높이 들어 답례하시여라

오, 무장으로 개척한 백두의 행군길
불바다를 헤쳐 장장 몇만리던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김일성대원수의 혁명위업
문무충효로 이어가시는 김정일 원수!

...

오, 조국의 운명이시며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신
강철의 령장 최고사령관이시여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를 받으시라
끝없는 영광, 영광을 받으시라

〈원수별〉

청년문학('92. 6)

인민이 드렸습니다
선렬들이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원수별을

그 별에 어리어 있습니다
백두천상에 광명성 탄생했다고
소백수 물을 떠서 먹을 갈던 투사들
그들이 나무에 새긴 자량이

그 별에 깃들어있습니다
목숨과 바꾼 귀한 천으로
어리신 그이께 군복을 지어드리며
조국을 지킬 장군이 되여주길 바라던
력사의 간절한 그 념원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지켜
백전백승의 전법으로
일당백의 무장력을 키워오신 그이께
인민이 엮어드린 원수별

제국주의가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는
준엄한 시기에
위엄에 찬 평화적건설로
놈들을 전률케 하신 그이께
세기가 없어드린 원수별

그 별빛을 받아
이 나라 강산에
우리의 창창한 미래에
행복과 승리의 환호소리
장엄히 울리거니

아, 력사는 환호에 휩싸여
오늘을 길이 전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를 대원수로 모신 내 나라에
김정일동지를 원수로 함께 모신것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니시고
자주와 평화, 혁명을 지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어깨우에
어제와 오늘과 래일의 영광을 다 합쳐
뜨거운 손을 모아
원수별을 삼가 드렸습니다!

〈함도성 우러러〉

아동문학('92. 6)

아름다운 연풍호
출렁이는 기슭에
새로 찾은 구호나무
달려가 보았더니

아름드리 소나무에
별하나 반겨요
어두운 세상 밝게 밝게
비쳐준 별이죠

백두산 마루에
광명성 솟은 날
투사들이 정성담아
새긴 별이죠

지도자선생님
우러러 따르는
그 마음 어려있어
더없이 소중한 별

세월은 흘러도

눈비 내려도
변함없이 더더욱
빛나는 큰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온대도
변함없이 살래요
향도성 우리러

〈영웅형님 고향에서〉

아동문학('92. 6)

만약 영웅형님이 있다면
한달음에 달려오리
장군님 걸으신 저 동구길
발목이 시도록 걷고파

만약 영웅형님이 있다면
목청다해 시를 읊으리
장군님 살펴보던 저 앵두나무를
또 보풀인 학습장을...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치고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영웅

아, 우리가 영웅형님의
발걸음이 되어
마음이 되어
저 동구길 걸어보리

장군님 걸으시던
금천강이랑
저 버들숲의
물노래도 다 들어보고

장군님 쓸어보시던
저 앵두나무에 물도 주며
보풀린 학습장에
두볼도 비벼보며...

아, 김정일장군님
그리도 잊지 못하시는
리수복영웅이 되어
우리도 어머니조국을 위해
한목숨 다 바쳐가리라

〈백두밀영의 고향집아〉

조선예술('92. 2 특간호)

1. 어두움을 헤치고 붉은해가 솟아올라
삼천리 강산에 밝은빛을 뿌리였네
백두밀영 귀틀집의 싸늘한 좁은 방에
민족의 큰 아들로 태어났네 대장부로 태어났네
만경대의 고향집과 백두밀영고향집은
조국의 청사에 빛나리라 길이길이 빛나리라
2. 산도 열고 땅도 열고 물도 어는 엄동설한
원쑤치는 총소리 자장가로 들으셨네
어머님의 뜻을 안고 대담성을 키웠으며
아버님의 모습따라 자라셨네
향도성으로 자라셨네
3. 강도 일제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한후
개선하신 아버님과 환호속에 함께 왔네
주체위업 계승해갈 예지와 포부 안고
지도자의 그 이름 떨치네
온 만상에 떨치네

〈전사들은 영광을 드리네〉

조선예술('92. 2. 특간호)

1. 우리가 바라오던 소원을 담아
그이를 높이모신 행복 끝없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전사들은 한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네

2. 그 사랑 우릴 안아 용맹을 주고
그 믿음 우릴 불러 위훈을 주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전사들은 한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네

3. 령장의 손길따라 나가는 길엔
승리의 노래만이 높이 울리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전사들은 한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네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조선예술(92. 4 특간호)

1. 언제나 친근한 우리의 령장

진두에 높이 모셨네
전사들 누구나 감격에 넘쳐
우리리 마음다지네
걸음걸음 따르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2. 전사들 제일로 사랑하시며

금별로 빛내주시네
예지의 그 빛발 앞길을 밝혀
우리의 승리가 있네
걸음걸음 따르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3. 그이가 우리를 이끄시기에

마음은 든든하다네
주시는 명령을 높이 받들어
주체의 위엄 떨치리
걸음걸음 따르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경례를 받으시라〉

로동청년('92. 6. 24)

1. 펄펄펄 날리는 당기를 보아라
기폭은 말하리 말하리
불패의 단결로 승리를 떨치신
로숙한 우리당의 역사를
로동당의 령도자 김정일원수이시여
경례를 받으시라 경례를 받으시라
2. 펄펄펄 날리는 국기를 보아라
기폭은 말하리 말하리
인민과 존엄과 행복을 지켜준
영광찬 공화국의 역사를
인민들의 아버지 김정일원수이시여
경례를 받으시라 경례를 받으시라
3. 펄펄펄 날리는 군기를 보아라
기폭은 말하리 말하리
혁명의 무력을 승리로 이끄신
빛나는 군건설의 역사를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이시여
경례를 받으시라 경례를 받으시라

<그이께서 다녀가신 일터입니다>

로동신문('92. 10. 18)

1. 설레이는 가을날에 들판길에서
금나락에 허리묻혀 걸음멈췄네
만풍년에 깃든사연 물어봤더니
그이께서 다녀가신 별이랍니다
아, 친애하신 김정일동지
그 품속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2. 노래처럼 기계소리 울리는 구내
자동화의 불빛앞에 걸음멈췄네
전변의 그 사연을 물어봤더니
그이께서 다녀가신 일터입니다
아, 친애하신 김정일동지
그 품속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3. 기쁨이면 기쁨솟아 그의 이야기
자랑이면 자랑많아 그이 이야기
친애하는 그이의 자욱마다에
우리들의 행복이 꽃피납니다
아, 친애하신 김정일동지
그 품속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 김정일관련 전설 날조

〈만병초〉

조선문학(1992. 2)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하여 신기한령약으로 불리우는 만병초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관목이다. 모진 추위와 광풍을 이겨내고 눈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의한 의지의 상징인 백두산만병초에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일을 되살려주는 만병초전설에는 백두광명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으니 오늘 백두산사람들이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즐겨 전하는것은 지극히 옹당한 일이다.

우리들의 운명을 행복에로 이끌어주는 민족의 광휘 - 백두광명성과 만병초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을가.

사슴골은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다.

어느때부터 여기에 민가가 생기고 마을이 들어앉았는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왜놈과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속세를 떠나 산속에 몸을 숨긴 사람들이 하나들 모여 이루어진 마을인것임에 틀림이없다.

사슴골마을에는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랑쇠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겨울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처서판으로 돈벌

이를 떠났다. 그래 고랑쇠가 앓는 어머니를 구완하고 있었다.

살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고장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째지게 가난하였으나 인심이 후하고 인정이 흘러 가난속에서도 퍼그나 화목하게 살고있었다.

그들은 피땀을 흘려 일군 화전에 감자와 귀밀을 심었는데 워낙 땅이 척박한 고장이라 소출이 적은데다가 악착한 왜놈들이 여기 궁벽한 산간오지에까지 따라와 얼마 안되는 곡식을 몽땅 빼앗아가는 바람에 항시 굶주림에 허덕이군하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몇푼의 돈을 벌기 위해 왜놈들이 주인노릇을 하는 험한 처서판을 찾아 집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바줄로 통나무를 끌어날라야 하는 처서판은 언제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죽지 않으면 종신불구가 되는 고역장으로 남편과 아버지들을 떠나보낸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어느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눈보라가 태질을 하는 올씨년스러운 밤에는 뜯눈으로 긴긴밤을 새우군하였다.

속탈로 여러해째 자리에 누워 앓으면서 바깥출입이나 겨우 하는 고랑쇠의 어머니는 요사이 더욱 마음이 불안하였다.

《자리나 잡으면 이내 한번 들리겠다던 너의 아버지가 2월에 접어들도록 소식이 없는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어머니두 참, 걱정말아요. 잘 있으니까 소식이 없는게지요.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고랑쇠였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병이 똑 떨어질것 같다...》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여 말끝을 흐리었다.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온 고랑쇠는 코바람을 힘껏 불며 장작을 췌다.

한참 도끼질을 하고나니 답답하던 가슴이 쑥 열리는것 같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그날따라 맵잔 칼바람이 눈가루를 날리며 기승을 부렸다.

고랑쇠네 집에는 무서운 불행이 덮쳐들었다.

처서판으로 아들을 만나러 갔던 이웃집 박로인이 끌고돌아온 발구우에는 사경에 처한 고랑쇠의 아버지가 누워있었다.

산판을 돌아치며 로동자들을 못살게 굴던 왜놈 십장놈이 밑에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둔덕우에 무저놓은 통나무무지의 받침대를 제마음대로 뽑아던지는 바람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통나무사태에 치우는 참사가 빚어졌던 것이다.

격분한 로동자들과 왜놈들 사이에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박로인의 아들은 도끼를 휘둘러 여러명의 경찰놈을 까눕히고 수림속으로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이렇게 되어 아들을 만나지 못한 박로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고랑쇠의 아버지를 싣고 돌아온것이였다.

머리가 터지고 여러군데 상처를 입은 아버지의 정상은 참혹하였다.

가까스로 숨을 붙어있으나 불행한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으흑… 아버지!》

《여보… 이게 웬일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통곡하던 어머니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고랑쇠는 겁이 덜컥 났다.

《어머니 정신차리세요. 으흐흑…》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어머니… 고랑쇠의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어허… 세상도 무심하구나…》

박로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요. 예?…》

고랑쇠는 박로인을 붙잡고 몸부림쳤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던 로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겨울에 핀 백두산의 만병초꽃이 죽게
된 사람을 살리고 못고치는 병이 없다구들 하더라만…》

고랑쇠는 귀가 번쩍 트이는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 추운 겨울철에 어디에 만병초꽃이 피여있는지 알겠
느냐?》

《할아버지, 제가 그 만병초꽃을 구해오겠어요.》

박로인은 펄쩍 뛰면서 손을 내저었다.

《아서라! 내가 공연한 말을 했구나. 백두산추위가 어떠한지 너
알기나 하느냐?》

《할아버지, 만병초꽃을 찾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겠어요.》

고랑쇠는 숨겨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을 떨구며 다
집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만병초꽃을 찾으러 백두산으로 갑니
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박로인이 그토록 말했으나 고랑쇠는 끝내 집을 나섰다.

밖에서는 웅-웅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다.

백두산쪽으로 방향을 잡은 고랑쇠는 가슴을 치는 눈속을 헤치며
내쳐 걸었다. 캄캄한 밤, 뒤엉킨 가시덤불...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방에서 쨍-쨍- 박달나무 떨어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랑쇠는 온몸이 뽕뽕 얼어들었다.

벌써 열흘나마 찾아헤맸으나 백두산은 아직 먼곳에 있었다. 열아
흐레만에 그는 백두산 기슭에 이르렀다. 그러나 갈길이 쌓인 눈속
에서 만병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으랴.

눈우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별무리를 이루었는데 그중에는 곰같은
모양을 이룬것도 있고 사슴처럼 생긴 별무리도 있었다.

《별님, 별님, 밝은 별님, 만병초가 있는곳을 알려주세요. 불쌍한
우리 부모 살려주세요.》

고랑쇠는 별한테 물으면 만병초가 있는곳을 알것만 같아 하늘에
대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슴처럼 생긴 별무리가 눈부신 빛을 뿌리며 땅으로 쏟아져내리
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맵짠 추위가 가서지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

다.

백두산쪽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폐부속에 흘러들어 흑하고 흐느끼고나자 대번에 얼었던 온몸이 녹고 새힘이 솟는것이였다.

어느덧 은쟁반같은 달이 하늘중천에 높이 솟아 백두산이 여러 봉우리들을 두루 비치니 그야말로 령산은 월세계였다.

산에 비친 달, 눈우에 비친 달, 울창한 숲에 비친 달... 그 어디에 비친 달을 나무람하랴만은 이날밤 여기에 비친 달은 참으로 무어라 표현할수 없었다.

산정에서 무너져내리는 희디흰 눈은 말그대로 은하수를 기울인듯 하여 보느이로 하여금 산비경에 취해 절반 얼을 빼앗아갔다.

계곡을 따라 무너져내리는 눈은 바위에 부딪쳐 하얀꽃으로 부서지는데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에 그것들은 물방울로 변했다. 거기에 달빛이 비치니 틀림없는 령롱한 야광주였다.

《백두산이다!—》

고랑쇠는 힘껏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인차 눈보라소리에 삼키우고말았다.

어느 사이엔가 백두산창공에 장수별이 빛나더니 그옆에 신비른 새별의 솟아 찬란한 빛발을 뿌리는것이였다.

찬란한 그 빛은 온 누리를 환하게 비쳐주었다.

젓빛안개가 자오룩히 피여오르는 백두산천지엔 금실을 드리운듯 하였다.

고랑쇠는 백두산의 황홀경에 넋을 잃고 멍하니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백두산쪽에서 탐스럽게 생긴 사슴 한마리가 나
느듯이 달려오고있었다.

(웬 사슴일가?)

그 사슴은 고랑쇠앞으로 곧바로 오더니 저쪽 장수봉쪽으로 방
향을 바꾸어 달려가는것이였다.

달빛의 조화인지 아니면 별빛의 조화인지 그 사슴은 온몸에서 빛
을 뿌리는 금빛사슴처럼 보였다. 아니 분명 금빛사슴이였다.

고랑쇠는 어쩐지 그 사슴이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것만 같았다.
가다가는 서서 뒤를 돌아보고 또 가다가는 한참이나 고랑쇠를 돌아
보군하였다.

고랑쇠는 저도 모르게 그 사슴을 따라갔다.

얼마쯤 따라가니 어느덧 아침해가 솟았다.

수림속을 헤치며 금빛사슴을 따라가던 고랑쇠는 어느 바위벼랑밑
에 이르자 깜짝 놀랐다.

고랑쇠앞에 노란꽃이 활짝 핀 만병초가 한벌 쪽 깔려있는것이 아
닌가.

고랑쇠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만병초꽃을 한송이 두송이 정히
따서 가슴에 품었다.

온몸에 향기로운 꽃내가 풍기고 힘은 더 부쩍부쩍 솟구쳤다.

(저 사슴이 나에게 만병초가 있는곳을 대주었구나!)

고랑쇠는 눈속에서 피어난 만병초가 더없이 고마왔다. 자기를 이
곳으로 이끌어준 금빛사슴이 고마왔고 눈석이틀 일으킨 훈훈한 바
람도 고마왔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그 누군가의 조화로만 여겨져 고랑쇠는 또

잠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밤이면 하늘에서 명멸하는 장군별!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솟은 새별!

고랑쇠는 그 별의 조화가 아닐가 하고 생각하였다. 때아니게 천지를 향하여 쏟아져내리는 그 별빛에 어떤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지중 들었다.

귀중한 만병초꽃을 가슴에 안은 고랑쇠는 멀리 장수봉쪽 수림속으로 사라지는 금빛사슴을 손을 들어 오래도록 바라주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었다.

웬일인지 고랑쇠가 가는 앞엔 눈이 녹아 길을 내주었다. 그 길을 따라가니 퍼그나 가까와져 한나절 남짓해서 집에 가닿게 되었다.

《할아버지!》

고랑쇠가 집에 불쑥 들어서니 박로인은 눈을 크게 뜨고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기만 하였다.

《보세요, 만병초꽃을 가져왔어요!》

《아니 이게 꿈이나? 생시냐?》

《내 이제 죄다 말씀드리겠어요.》

박로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한 고랑쇠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와 맥없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만병초꽃향기를 맡게 한 다음 그것을 달여 방울방울 입에 넣어드렸다.

잠시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숨소리가 순조로워졌다.

백두산의 만병초는 령산의 정기가 어려서인지 참으로 신기한 령약이었다.

어느덧 셋은듯이 상처를 가신 아버지가 일어났고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난듯 어머니도 몸이 가벼워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 어머니! -》

고랑쇠는 부모님들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고랑쇠는 어깨를 들먹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애야, 이게 어찌된 일이나?》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대견스레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정말 생시란말이나?》

어머니도 너무 기뻐 저고리고름을 눈에 가져다댔다.

고랑쇠는 자기가 보고 겪은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고랑쇠의 말이 끝났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박로인은 너무도 놀라와 돌미륵처럼 그자리에 앉아 까딱않고 머리만 끄덕이었다.

《음, 그렇단말이지?》

박로인은 앓음새를 고치더니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백두산의 봄우뢰... 백두산에 새로 솟은 새별! 정말 희한한 일일세.》

《백두산에서 걸출한 위인이 탄생하신게 분명합니다.》

《웁네, 예로부터 위인이 태어날 땐 하늘에 상서로운 별이 뜨고 천기변화가 무쌍하다 하였거늘 분명할세.》

박로인과 고랑쇠 아버지는 오래동안 말을 주고 받았다.

그들의 목소린 갈려있었다.

이야기는 좀처럼 끝날줄을 몰랐다.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은 바로 2월 16일이였다.

×

그후 사람들은 얼마 지나서야 백두광명성 탄생에 대한 격동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아무렴, 그럴테지. 고랑쇠가 만병초꽃을 얻은날이 그저 레사로 운 날은 아니란말야. 아무리 만병초의 약효가 크다 한들 보통날에 뜯어서야 그런 신통력을 가질수 없지.》하고 말하곤하였다.

최근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구호나무들이 많이 발굴되자 이 이야기에 신빙성이 더해져 사람들은 전설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누가 그 말을 부인할수 있겠는가!

..

〈백두산장수봉에 광명성 솟았다〉

로동청년('92. 1. 17,18)

사철 흰눈을 머리에 인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리명수에 박덕칠이라는 로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3·1운동 때 왜놈들의 칼부림에 안해와 아이들을 다 잃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의병대에서 싸우다가 실패만 거듭하자 산속에 들어와 포수가 된 사람이였다.

몸에 걸친 화승대를 혈육삼아 의지하고 밀림에서 산짐승들을 잡아 육식을 해서인지 로인은 힘이뻗쳐 백두산준령을 마을들이하듯 하였다.

어떤 때는 며칠씩 또 어떤 때는 몇달씩 산중에서 지내는 로인의 일이 하도 궁금하여 《백두산에서 록용이라고 찻소? 그렇지 않다면 야 어떻게 산발을 그렇게도 극성스럽게 타오?》하고 마을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호기있게 채수염을 쓸어만지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록용만 찻겠소, 난 지금 언제쯤이면 3천리를 찻겠는가 해서 이렇게 안달아하지 않소.》

《아니, 3천리를 찻다니요?!》

마을사람들은 3천리를 찻는다는 말에 이 령감이 세상을 걸음마다 원망하더니 제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가싶어 되물었다.

그러자 로인은 두눈을 쪼프리며 《거, 임자네들도 백두산 장군봉에 걸쳐앉아 천지물로 장검을 갈아 왜적을 치신다는 백두산장수이야기를 들었겠지?》 하고 물었다.

《아, 듣다마다요. 마실가서 들은 소리가 원통 그 소린데...》

마을사람들도 백두산에 장수가 나타나 수천의 용사를 거느리고 왜놈들을 삼대베듯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저마다 머리를 끄덕이며 말참견을 하였다.

《그러게 말일세, 난 백두산장수를 만나뵈옵기로 작정했네. 내 한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만 그 여생이라도 바쳐 백두산장수를 만나뵈지 않고선 죽어도 눈을 감을것 같지 않네.

그래서 내 이렇게 행전을 둘러치고 나서지 않았겠나.》

그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과시 의병의 칼의 들었던 로인의 심지가 다르다고 감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백두산장수를 만나뵈거든 들랑 자기네 소원을 담아 백의동포가 한울에서 복락하며 사는 3천리를 찾아줍시사 하고 빌어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다.

《내 백두산장수를 만나뵈옵기전엔 이 마을에 발길도 하지 않으리라!》

로인은 마을사람들앞에서 이렇게 마음속 맹세를 다지고 그들이 꾸려준 감자떡과 노루털갈개를 등허리에 걸머지고 기세차게 길을 떠났다.

달포가 넘도록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의 험산준령과 골짜기들을 훑어나가던 로인은 어느날 한낮때 백두산 산정에 올랐다.

2월의 백두산은 장엄무쌍하게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거연히 일떠선 병사봉(오늘의 장군봉), 차일룡, 망천후(오늘의 향도봉)들은 왜적을 물리칠 백의동포의 역세인 기상 같았고 청동의 성곽처럼 으리으리한 절벽은 꺾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우리 민족의 굳센 의지같았다.

천지호반을 바라보니 눈보라가 광란하는것이 마치 수천수만의 무

사들이 칼부림을 하며 왜적을 칠 무술을 익히는것만 같았다.

울울창창한 분비, 가분비, 잣나무가 광풍에 떠는 소리는 수천의 군사들이 와-와- 합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육박하는 소리같았다.

참으로 백두산장수의 무적의 힘이 태동하는것 같았다.

한참동안 뉘웠은 사람처럼 서있던 로인은 백날이고 천날이고 이 산정에 들고앉아 백두산장수를 맞으리라 생각하며 주섬주섬 털갈개를 꺼고앉아 여우털목깃을 올리였다.

여우털목깃에서 해빛이 자글거리더니 자꾸만 눈시울이 내리뉘었다.

(백두산에서 백두산장수를 뵈우문사 더 기쁘고말고.)

이런 생각으로 앉있기를 몇시간이나 되던지...

로인이 바라보던 백두산천지우로 갑자기 눈처럼 하얀 흰제비 한 마리가 눈보라를 해가르며 날아오고 있었다.

(아니 흰제비가 이 겨울에 나타나다니? 예로부터 흰제비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로인은 두눈을 비비며 열없이 흰제비를 바라보았다.

이때 갑자기 눈부신 번개불이 번쩍 일더니 천지에서 열풍이 솟구쳐오르며 광란하던 눈보라를 쫓아버리었다.

호반은 어느새 갖가지 문양의 주단을 펼친듯 청신한 이끼들로 뒤덮이고 무연히 펼쳐진 고산초원에는 노란 만병초, 두메국화, 담자리참꽃, 두메아편꽃, 좀참꽃, 고산싱아가 자라 색깔이 류달리도 선명하고 고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다.

황홀경에 사로잡힌 로인은 무릎을 치며 취한듯 이 고산지대의 특유하고 신기한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앞에 불현듯 풍채좋은 백발로인이 나타났다.

천지우에 어느덧 햇شم같은 뭉게구름이 걸렸는데 흰두루마기자락을 날리는 백발로인이 그 구름우에 거연히 서서 흰제비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봐라, 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때이르게 날아드느냐?》

그러자 눈알이 흑진주같은 흰제비가 백발로인의 어깨우에 사뿐히 내려앉으며 청고운 목소리로 아뢰는 것이었다.

《백두산 할아버님, 기뻐하옵소서, 할아버님계선 이제 백두산장수와 같이 천하를 다스릴 비범한 장수를 또 한분 맞이하게 되시나이다!》

《아니, 백두산장수와 같은 장수를?!...》

《그렇소이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백두산장수의 혈기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새 장수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두산에서 반만년을 살아오신 할아버지께서 새 장수를 모실 성지를 속히 찾으소이다.》

《과시 이것은 백두산의 자랑, 백의 동포가 사는 이 나라의 영광이요, 대경사로다!

그러던데 어찌 새 장수를 모실 성지를 내 혼자서 찾는단말이나? 내 백두산에 있는 수십의 무사들과 뜻을 모아 찾으려다.》

백발로인은 흰구름속에서 열발은 실히 될 긴 등소를 들어올리더니 구성진 노래가락을 불어넘겼다.

청고운 흰제비가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백발을 날리는 천연의 무사들아

대경사가 생겼다 대경사가 생겼다
금수강산 3천리도 감격에 설레인다
에루 에루 에헤야 에헤헝 디여

모여라 모여라 어서 모여라
백두산의 대경사 의논을 하자

...

노래소리가 울리자 천리수혜우에 아지랑이 피여오르고 금빛, 은
빛 해살이 쏟아져 내리고 북소리, 징소리 요란하더니 하늘높이 솟았
던 병사릉, 망천후, 백암산, 장수봉, 차일봉, 충암산, 소백산, 백사
봉 등 수십의 봉우리들이 갑옷을 떨쳐입은 무사들로 변하여 백두산
등판으로 우줄우줄 다가왔다.

그 발걸음소리가 어찌나 세찬지 땅이 움썹거리고 천지에서는 파
도가 출렁이었다.

청동의 으리으리한 갑옷을 떨쳐입은 명사봉무사가 장점을 추켜들
고 모두 도착했음을 아뢰자 백발로인이 안개를 타고 등판에 내려서
서 부자들을 부른 취지를 알리었다.

백두산이 또 한분의 새 장수를 모시게 된다는 그의 말은 무사들
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무사들은 충효의 지혜를 모아 새 장수를 모실곳을 찾을지어다.》

무사들은 저저마다 백두산의 새장수를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주
장해나섰다.

갑론을박하는 론쟁속에 시간은 퍼그나 흘렀으나 새 장수를 모실
장소는 쉬이 찾지 못하였다.

이때 무사들의 론쟁에 끼여들지 않고 의미깊은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없이 서있던 장수봉무사가 흰제비에게 새 장수가 태어날 날이 언제인가고 물었다.

흰제비는 2월 16일이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장소봉투사는 저르기 흥분된 표정으로 무사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조용하십시오. 백두산의 새 장수는 이미 제가 모시도록 하늘의 계시가 있었소이다.》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는 말에 모두들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장수봉무사는 자못 심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계시를 받고 백두산의 새 장수를 맞이할 영광을 확고고대하며 정력을 들여 제가 있는곳에 명당자리성지를 마련해두었소이다. 저에게 있는 해돋이바위와 소택수의 맑은 물은 새 장수에게 태양의 열기와 천지의 맑은 정기를 드릴 것이요, 기압의 절력은 철의 의지를 드릴 것이옵니다.》

그리고 제가 반만년동안 쌓아올린 천험의 요새는 새 장수의 안녕을 지키는 영원한 성세가 될 것이옵니다. 더우기 저의 키가 216메러이오니 제가 새 장수를 모시는것은 천만지당한 일이옵니다.》

장수봉무사의 말을 듣는 무사들은 그의 공력을 찬양하며 모두 슬렁이었다.

새 장수의 탄생을 일구월심 기다려 충효를 키우고 신심을 단련한 장수봉무사가 새 장수를 모시는것은 너무도 웅당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백발로인도 투사들의 말을 긍정하고나서 장수봉무사에게 엄숙히

물었다.

《그래 네가 하늘의 계시대로 백두산 새 장수를 모시면 어떻게 하려느냐?》

장수봉무사는 머리우에 칼을 들어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세번 후려치더니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시를 읊어 맹세하였다.

해돋이바위 여기 있어

흐린 날 없고

소백수 맑은 물 여기 흘러

맑은 정기 넘치려

내 반만년 다듬고 쌓아온

천협의 절벽은

백두산 새 장수를 옹위하는

성벽이 되려니

세월이 기다리고 하늘이 낸

새 장수에게 충효를 다하리라

세상의 온갖 불의를 짓부셔버리며

높이높이 받들어모시리라

그러자 모든 무사들이 백두산 새 장수를 높이높이 받들어모시자고 우뢰같은 함성을 지르고 허공에 9척장검을 세번 휘둘렀다.

이윽하여 백발로인은 안개속에 손을 넣어 홍보석과 청보석을 꺼내더니 장수봉무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새 장수를 맞게 되면 청보석과 홍보석으로 장군별결에 또 하나의 장수별을 띄워올려 세상을 밝히는 광명성이 되게 하라고 일렀다.

장수봉무사는 광명성을 띄워올리면서 밤에는 은하수를, 낮에는 령룡한 쌍무지개를 비껴놓아 백두산 새 장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였다.

백발로인은 흐뭇한 마음을 금치못해하며 무사들에게 어서 돌아가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면서 부석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무사들은 백두산등판에 붙어치는 회오리바람에 부석을 띄워타고 서둘러 떠나갔다.

로인은 회오리바람이 여우털 덧저고리자락을 흔드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덧저고리자락안에 목침만한 부석덩이가 안겨있었다.

《아니, 부석들이...》

순간, 로인은 부석을 타고 훨훨 날아가 새 장수의 탄생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라던 백발로인의 그윽글은 목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참 이상한걸. 백발로인이 나에게도 부석을 안겨주다니... 마을사람들에게 어서빨리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 아닌가?!》

자정이 지나면 새 장수가 탄생하게 될 2월 16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로인은 마음이 조급해났다.

웅근 하루길을 어떻게 몇시간에 가 닿을수 있으랴.

로인은 부석을 띄우려고 가슴우로 올리였다.

순간 몸이 허공 들리면서 걸음발이 빨라졌다.

로인은 웅근하루길을 몇시간사이에 달려 리명수에 이르렀다.

로인의 꿈이야기를 들은 마을사람들은 그것은 꿈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라고 하면서 신기한 그 시각을 기다려보자고 하였다.

리명수마을은 이날밤 명절처럼 들끓었다. 박로인은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높은 등판에 올랐다.

저 멀리 백두산 산정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군별이 높이 떠 령롱히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고의 숲이 뒤설레이며 광풍이 일더니 장수봉부근이 희뵤히 밝아지는것이였다.

그 순간 장수봉에서 청색의 불찌가 병곳 피여오르더니 장군별결에 또하나의 별이 솟아올라 백광을 뿌리였다.

〈땅속에서 나온 붉은 옥들〉

천리마('92. 1. 21,22)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하늘이 낸 위인이시기때문에 하늘도 땅도 그이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이의 지엄하신 령을 받는다고 한다.

천기술법을 쓰시고 풍운조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하늘이 그이의 뜻대로 움직인다는것이요, 천지확장술을 쓰시여 바다도 옥토별로 만들고 땅속에서 금은보화가 분수처럼 솟구치게 하신다는것은 땅이 그이의 뜻을 받든다는것이다.

주체사상탑을 건립할 때, 바로 탑신을 세울 그밑, 땅속에서 집채

만한 붉은 옥들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으니 그것 또한 땅이 그이의 령을 받든것이 아닐가?

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돌을 몇해 앞둔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평양에 주체사상탑을 세울 발기를 하시
고 한 일군에게 그 부지를 잡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과업을 받은 일군은 세상에 들도 없는 사상을 칭송하는 기념비인
주체사상탑을 어디에 세울것인가 하고 평양의 여러곳을 다니며 안
성맞춤한 자리를 잡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평양엔 명승지도 많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도 곳곳마다에 깃들어있어 처음에는 별로 힘
들이지 않고 자리를 잡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정작 택하
자고 보니 어디에다 정할지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지질전문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동평양쪽엔 지질층이 석회암이여
서 동굴이 많고 큰 물주머니가 땅속에 있기때문에 주체사상탑과 같
은 만년대계의 큰 기념비는 절대 세울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얼마전에도 동평양지구이 지질을 조사하였다는것이였다.

그 일군은 아예 동평양쪽에는 자리를 잡을념을 하지 않았다. 그
는 지질층이 사암으로 되어있는 본평양쪽에 자리를 잡으려 하였으
나 이렇다할 명당자리를 잡을수가 없었다.

자리가 좋다고 생각되는곳엔 지질층이 나쁘고 또 지질층이 좋은
곳은 자리가 시원치 않았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
었다.

그러던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를 집무실로 부르시였
다.

그이께서는 그의 보고를 자세히 들으시고나서

《그러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단말이지요? 그럼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자리를 잡읍시다.》라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 부르셨는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해당부문 일군들과 함께 밖에 나와 차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승용차로 인민대학습당쪽으로 몰라고 하시였다. 승용차는 소리없이 수도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잠시후 인민대학습당앞에 이르자 그이께서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정문우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결심하고 계신듯 손을 드시어 대동강건너편 동평양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탑은 인민대학습당전망대에서 곧바로 건너다보이는 저기 동평양쪽 대동강기슭에다 세웁시다.》

순간 일군은 그이께 무엇인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인차 자제하고 말았다.

그이께 동평양지구의 지질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모르실리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인차 단념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그 자리가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다만 동평양지구 지질상태를 잘알고 있는 그와 한 지질일군만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박동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리를 잡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떻게 물으시자 그 일군은 그이앞에서 외람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일없습니다. 래일 당장 저 자리에 시추를 하여 지질을 조사해보시오. 아마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 아니면 화강암이 나칠겁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고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다음날 그자리에서는 시추작업이 진행되였다. 밤에 낮을 이어 단 한순간도 시추기소리가 멎을때가 없었다.

그 일군은 잠시도 시추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그는 물론 지질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시추기에서 나오는 시료봉들은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었는데 그것도 청석이었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가운데 시추기에서 나온 시료봉은 붉은 옥들이였다.

《옥들이다!》

시추공들은 옥들을 들고 희한해하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는 빛을 뿌리는 붉은 옥들시료봉을 들고 넋이 나간듯 멍하니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만이 아니였다. 지질일군들과 시추공들은 놀라운 사실앞에 어

리동절해졌다.

그들은 며칠전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서 지질을 조사하였다.

그 때 땅속에서는 석회암과 모래와 자갈이 나왔었다.

좀더 깊이 들어가서는 물주머니와 커다란 동공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은 바로 그런 지질층이 지금 조사하고있는자리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을것이라고 단정하였었다.

그런데 이렇게도 천양지차인가!

그들은 다시 눈을 부비고 시로봉을 보았다. 분명히 그것은 옥돌이었고 사암은 청색이었다.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 소문은 삼시에 평양시안에 꼭 퍼져갔다.

《주체사상탑을 세울 자리에서 붉은 옥돌이 나왔다!-》

《석회암지대가 갑자기 사암지대로 변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또 이런 소문이 뒤따랐다.

어느날 모두가 깊이 잠든 야밤삼경에 갑자기 평양시에 지동이 울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잘 몰랐어도 잠귀가 밝은 늙은이들은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그날 땅속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는데 모란봉밑의 사암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 자리를 잡아주신곳으로 이동하여갔고 저멀리 룡강군과 온천군의 마영과 룡월리에서 굳고 굳은 화강암이 그자리로 밀려왔다는것이였다.

붉은 옥돌도 어디선가 여기로 흘러왔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때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탑자리를 잡아주신 그날밤 이라는것이였다.

그뒤 주체사상탑 건립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기초를 파기 시작하였다. 땅속에서는 시 할 때 조사한대로 주체사상탑 탑신을 세워야 할 그 밑에서 집체만한 붉은 옥들이 나왔다.

그리고 청석인 사암과 화강암이 넓은 면적에 뿌리를 박고있어 기초는 더할나위없이 든든하였다.

그들은 옥들을 캐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우에다 기초를 하였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라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170미터높이의 세계최대결작인 주체사상탑이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였다.

이런 탑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잉글랜드의 런던탑이며 지중해연안의 피사의 사탑, 멜리시 남쪽의 쿠르브 미나르의 탑, 랑군강하구에서 바라보이는 황금빛불탑... 그 어느 탑도 여기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주체사상탑은 높이와 웅장함과 그 모양에 있어서나 담고있는 뜻과 사상에 있어서나 가장 훌륭한 탑이다.

기념탑이 서면 거기에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가지 전설이 창조되어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체사상탑은 일떠서기도전에 벌써 전설이 많이 창조되어 전해졌다.

그리고보면 주체사상탑은 전설의 측면에서 보아도 세계 최고의 탑인것이다.

주체사상탑에는 여러가지 신기한 현상들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김일성광장 주석단에 오르시기만 하면 여느때없이 주체사상탑우에 반드시 쌍무지개가 걸리곤한다.

그런가 하면 밝은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평양시는 물론 산이 가리워 보이지 않는 먼곳에서도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신기루라고 하는 신비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기는것인데 한 외국인은 주체사상탑의 이 현상을 두고 이세상 그 어디서도 다 보이게 하는 《세계의 신기루》라고까지 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신기한 현상을 두고 땅속에 묻혀있는 붉은 옥돌이 조화를 부리기때문이라고 한다.

이 모든것은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명당자리를 잡아주시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탑을 세우도록 하셨기때문이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그 이께서 의도하시는데로 땅속의 지질도 변화되는것이 아닐까?

〈벼나무〉

로동청년('92. 2. 4,5)

1984년 늦은 여름, 갑자기 쏟아부은 폭우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이때의 큰 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20만 7천명의 이재민이 한지에 나앉게 하였다. 그뒤로 들이닥친 추위와 굶주림,

무서운 병마는 또다시 수재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이 담긴 구호물자가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많은 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벼나무에 대한 전설도 조국통일이 구세주로 높이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이 창조한 이야기이다.

서울의 어느 한 교외, 한간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판자촌에는 《영들이네 집》이라고 부르는 한 가정이 있었다.

영들이는 이 집의 막내동인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다면 아마 스무살도 훨씬 넘을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래전에 죽은 막내아들 이름으로 오늘도 그 집을 부르는 데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다.

남달리 영특하고 귀여운 영들이는 온 마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짜지게 가난한 이 집에서는 석자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어 귀여운 막내동이인 영들의의 작은 배마저 채워줄수가 없었다.

식솔은 적지 않아 자그만치 아들만 여덟인데 그들모두가 한결같이 총명하고 귀엽게 생겨 사람들은 그 집을 《8선녀네 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궁색한 생활속에도 앞으로 8선녀를 맞아들일 기쁨으로 하여 가끔 웃음이 비끼군 하였다.

아무리 끝끝한 아들도 키워놓은 다음에는 대견스러우나 키울 때

는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마련이지만 영들이네 부모들의 가슴을 태운것은 자식들때문이 아니고 가난때문이었다.

언젠가 《8선녀》네 여덟형제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막내가 영들이가 남조석적으로 진행한 《전국국민학교학생수학콩쿨》에서 1등을 하였을 때에도 부모들은 만년필 하나 사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린 영들이는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안하며 자기는 연필을 쓰는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자식들이 그러한 양을 보면 오히려 부모들의 가슴은 더 아프고 쓰렸다.

영들이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각별한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집에 큰 불행이 닥쳐왔다.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가 류행성출혈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신음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울망졸망한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여덟형제를 먹여살릴수가 없었다.

영들이네 집에는 무서운 기근이 닥쳐왔다.

보리고개만 넘기면 풀리는 기근도 아니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그런 막막한 기근이었다.

여지껏 초근목피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왔으나 인젠 그것마저 떨어졌고 독에는 거미줄이 쓴지 오래되었다.

동네사람들이 가끔 방조를 주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가난한 살림이라 저희들도 살아가기 힘든 형편에서 한두식솔도 아닌 아홉식구를 장창 도울수는 없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두가 자기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이 어린 영들이가 먼저 마지막숨을 묻고 있었다.

《영들아! -》

어머니와 형들은 눈물을 삼키며 숨져가는 영들을 애타게 불렀다.

영들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나 짜배기 하나만 사줘, 흰쌀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가난이 너무도 때이르게 철들게 하였는지 언제 한번, 어머니에게 무엇이 먹고싶다고 하지 않던 영들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은 어머니와 형들의 가슴을 찢었다.

영들일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형들의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모여온 동네사람들도 흑흑 흐느끼다가 눈물을 흘리며 차마 그 정상을 볼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동네사람들은 없는 살림에도 영들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돈을 모아 짜배기 세 개와 흰쌀밥 한그릇을 장만하였다.

그러나 영들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은 짜배기와 흰쌀밥을 영들의 관속에 넣어 주었다.

관속에 짜배기와 흰쌀밥을 안고간 어린 영들의 유언은 오래동안 이 고장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가난은 그 뒤에도 영들이네 집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니 날이 갈수록 가난은 더해만졌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큰 홍수에 한강물이 불어나 수해

까지 입게 되었다.

갑자기 돌이닥친 수해로 영들이네뿐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왔아 맨주먹만 빨게 되었다.

바로 이때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흰쌀과 세멘트, 천을 비롯한 많은 구호물자들을 수재민들에게 보내주시는 뜨거운 동포애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영들이네집에서도 흰쌀과 천과 약을 비롯한 많은 구호물자들이 차례지게 되었다.

그날 영들이네는 난생처음 구호미로 흰쌀밥을 지어먹었다. 그들은 흰쌀밥을 먹으면서 영들이 생각이 치밀어올라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끝내 그동안 굶어죽은 네 형제의 생각이 떠올라 술을 놓고야말았다.

나서 처음 흰쌀밥을 배부르게 먹은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나가 쌀독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 많은 쌀을 퍼내여 밥을 지었는데 쌀독에는 쌀이 그냥 그대로 있는것이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소리쳐 불렀다.

《애들이, 이걸 나와봐라. 어제 밥을 해먹었는데도 쌀이 그대로 있으니 이게 무슨 조화냐?》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부엌으로 달려내려간 아들들도 쌀독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이가 머리를 가웃거리며 말했다.

《혹시 동리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래 가져다놓은게 아닐까요?》

《그럴법도 하구나. 애들아, 그럼 저 앞집 영식이네 집이랑 옆집 분이네 집이랑 좀 가 알아보려무나. 한뼘 그 집들 신세만 지고 살겠느냐? 알아보고 도로 가져다주도록 하여라.》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일렀다.

아들들은 모두 집을 나서 가까운 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네 집에서도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다.

《참 이상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쌀밥을 해먹었으나 쌀은 조금도 축이 나지 않았다.

하루는 말이가 밤새껏 부엌에 숨어 쌀독을 지켜보았다. 누구하나 나타나는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아침에 보면 쌀독엔 쌀이 가득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달밝은 밤이었다.

아들들이 혼곤히 잠든것을 내려다보던 어머니는 창밖에 달빛이 환히 비치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마루에 앉았다.

밖에선 은실같은 달빛이 우중충한 서울거리를 비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심한 생각에 잠겼다.

북녘하늘에 커다란 장군별이 떠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별옆엔 항간에서 새 장수별이라고 부르는 새별 - 백두광명성

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저 별이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별이로구나!》

어머니는 웬일인지 알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언젠가 마을사람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백두광명성이 밝은 빛을 뿌리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이제 머지 않아 그 빛발이 남녘땅에도 비쳐들어 조국이 통일된다고 하였다.

병긋-하고 광명성이 갑자기 더 밝은 빛을 뿌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엇인가 마음에 쏙이는것이 있었다. 어머니는 일어나 끈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독을 열어보니 독안엔 또 쌀이 그득해진것이였다.

(그렇지, 이 쌀은 보통쌀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쌀이여서 이런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구나.)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 쌀을 심으면 혹시 싹이 트지 않을까?)

어머니는 벼알이 아닌 쌀을 심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는걸 모르는 것은 아니였으나 이 쌀은 너무도 신기한 쌀이여서 혹시나 하고 쌀알 몇알을 잡마당에다 심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다음날 아침 그 쌀알에서 싹이 트고 벼모가 자라오른것이였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급하게 찾았다.

마당으로 달려나온 아들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벼모는 그들이 보는 사이에도 우줄우줄 키를 솟구며 자라올랐다.

(이 벼모가 나무처럼 크게 자라 앵두만한 벼알이 열렸으면...)

그들은 이런 소원을 안고 온 집안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을 다해 그 벼모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들이 정성을 기울인탓인지 벼모는 한달이 지나자 키를 넘고 두달이 지나자 마당이 모자라게 가지를 펼치였다.

그 가지마다에는 이삭들이 주렁주렁 달리었는데 벼알 하나가 땅콩알만씩 하였다.

가을이 되자 벼알을 털어 쌀을 쟁으니 열가마니가 넘었다.

영돌이네는 그 쌀을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은 그 쌀을 받으며 자기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진심으로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드리였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져갔다.

누구보다 놀란것은 경찰놈들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놈들이 판자촌을 뒤졌으나 종시 그 벼나무와 영돌이네 가족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후 영돌이네는 서울을 떠난것만은 알지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소문에는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갔다고도 하고 동해바다 기슭 어느 도래마을에 가서 산다고도 하였다.

하여간 어디에 가 살든 영돌이네 쌀독에선 매일 쌀이 샘솟고 신기한 벼나무에선 해마다 많은 벼를 수확한다고 한다.

이 벼나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퍼져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백두산에 새 장수 났다〉

조선문학('92. 3)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김일성장군님을 추격하던 왜놈들앞에 난데없이 커다란 호수가 생겨나 앞길을 가로막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필유곡적이라 갑자기 생겨난 이 호수는 변화무쌍한 술법을 지니신 장군님께서 조화를 부리신게 아닐가.

왜놈들을 몰살시킨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감사의 마음은 지금도 이 푸른 늪가에 연연히 맴돌아 찾는 이들의 감회를 새롭게 한다.

백두산을 끼고있는 량강도 삼지연군에 가면 푸른 숲 우거진 밀림속에서 세계의 큰못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호수들을 찾아볼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지방에 가면 호수와 관련한 전설들이 많이 들고있다.

늪은 수달이 명주실을 밧못에 매고 못속으로 들어갔다는 별지암 전설은 말할것도 없고 아흔아홉선녀가 내려와 천지에서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도 실은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무두봉가까이 인적이 없는곳에서 까만 벽들과 기와 무지가 나타났는데 이 유적과 관련한 신무성전설도 원지라는 호수와 얽혀져있다.

또한 항일의 나날 이곳 인민들이 창조한 전설들 가운데서도 호수 이야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그 많은 못들마다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제나름의 전설이 있어 그것을 새겨보느라 면 호수마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 것이다.

압록강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깊은 산속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왜놈들이 망하던 바로 그해 봄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백두산에서 가까운 수림속에는 왜놈국경수비대가 등지를 틀고있었다.

어느날 수비대 대장 기무라는 제놈이 상관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잔뜩 불이 부어 썩썩거리고 있었다. 전화를 받을 땐 나무막대기처럼 꼳꼳이 서서 《핫, 핫》하고 대답만 하더니 수화기를 놓자마자 투덜댔다.

《뭐? 내가 머저리라구? 그런 전 뭐야? 등신같은게. 여기 형편은 알지두 못하구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내자리에 앉아보래, 제목숨 하나도 건사하지 못할걸, 흥.》

종로에서 매를 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기는 격이다.

기무라는 생각할수록 부아통이 터지는지 안절부절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물샷틈없는 경비진을 폈으나 항일유격대가 제마음대로 압록강을 넘나들며 왜놈들의 숨통을 조이는바람에 기무라는 매일같이 귀가 찌지게 욱을 먹었던것이다.

그러나 어찌한단말인가? 어떻게 제놈들이 축지, 승천입지, 변신, 둔갑장신, 분신도 마음대로 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당해내겠는가.

기무라는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였다.

기무라는 소식적부터 한다하는 싸움군이고 머리도 팽이처럼 잘 돌아 무슨 일에서나 재노라고 뽑내는 위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와서 항일유격데한테 꿀탕을 먹고 머저리라는 말까지 듣다나니 안달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기무라가 수비대 대장으로 온지는 일곱해째가 되었다.

기무라의 선임자들은 반년도 못되어 황천객이 되었거나 일이 잘 되는 경우라야 철직되어 쫓겨나군하였는데 그래도 일곱해나 그자리에 붙어있다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기무라는 그동안 앞뒤를 잘 발라맞추고 퇴물을 찢어놓고 쫓병들을 북아대여 운명을 용케도 유지해왔는데 얼마전에 그만 일이 터지고말았다.

북선과 만주의 치안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본영에서 파견한 검열관이 돌아치다가 기무라수비대에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검열관은 밀림속에서 나무에 쓴 글을 발견하였는데 내용인즉 김일성장군이 총출동명령을 내려 조선독립이 멀지 않았다는것과 백두산에 광명성이 솟았다는 경이적인 소식이었다.

《뭐? 광명성이 솟았다구?》 ㄴ

검열관은 덴접을 하였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뜨자 《대일본제국》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광명성이 또 솟았은즉 인젠 틀림없이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쳤다.

검열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주춤주춤 뒤걸음질을 치더니 병영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제야 안도의 숨을 후- 쉬고난 검열관은 기무라를 닦아세웠다.

《기무라, 당신과 당신의 병사들은 모두 청맹과니들인가? 눈이 뜬자리가 아닌이상 코앞에 있는 저 구호도 못보는가? 모조리 저 나무들을 찍어버리라.》

기무라는 졸병들은 내몰아 구호나무들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구호나무들은 찍으면 찍을수록 줄어들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것이였다.

얼마동안 역사질을 해서야 겨우 주변에 있는 구호나무들을 찍었다.

검열관이 간 뒤 기무라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겼다.

상관들은 무서워서 내려오지는 못하고 전화질만 자꾸 해댔다.

또 전화종소리가 따르릉하고 귀따갑게 방안을 울렸다.

기무라는 전화종소리가 울리자 흠칫 놀랐다.

그만큼 전화소리는 그에게 전률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수화기를 드니 왜가리청이 고막을 때렸다.

기무라는 이마에서 땀을 문지르며 《앗, 앓》하고 연거퍼 대답만 하였다.

이윽고 전화가 끝나자 기무라는 목깃단추를 풀어헤치고 뚱뚱한 몸을 안락의자에 맡겼다.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불안하여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의 운명이 알지 못할 깊은 심연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날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였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드릉드릉 흔들렸다.

기무라는 지진세례를 많이 받고사는 일본인의 본능으로 얼핏 천

정을 올려다보았다.

전등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렸다.

(지진이로구나!)

기무라는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또 쿵쿵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데가 있었다.

지진이라면 왜 쿵쿵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겠는가?

이것은 마치 굉장히 큰 망치로 땅을 내리치는것 같았다.

기무라의 머리엔 한가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이때 방안으로 보초병이 황급히 뛰어들었다.

《지지... 지진이... 》

이놈은 너무도 당황하여 말끝을 못맺었다.

그러나 기무라의 입가엔 일순 희심의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빨리 다 모이게 하라,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총출동이다!》

졸병들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지진이 이는데 김일성장군이 나타나다니?)

기무라는 쿵쿵소리가 울리는쪽으로 졸병들을 몰았다.

그는 밀정들을 봉해들은 항간에서 떠도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김일성장군은 기골이 장대하고 몸집이 우람한 장수이기때문에 걸을 때는 땅이 울린다는것이였다.

말을 탄 기무라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는 졸병들을 마구 몰아댔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눈앞엔 해빛도 스며들지 않는 원시림만 우거

졌을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았다.

어느 등성이에 이르자 쫓병들은 하나둘 땅에 풀썩풀썩 주저앉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큰대자로 누워 날 죽여주소 하고 눈들을 감고있었다.

기무라가 아무리 고아대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쌍안경으로 땅이 울리는쪽을 바라보았다.

《저쪽이다!》

기무라는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

높은 산등성으로 체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슾적스�적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던것이다.

그는 권총을 뽑아 허공에 대고 땅! 하고 한방 쏘더니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하고 소리쳤다.

《어디?》

《어디야?》

그제야 죽은듯이 누워있던 왜놈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목을 빼들었다. 놈들은 김일성장군님을 추격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유명한 장군을 한번 보기만이라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났던것이다.

아무리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맨눈엔 보이지 않았다.

《저쪽이다!》

기무라는 칼을 빼들고 쫓병들을 내몰았다.

끝짜기를 지나 높은 산 하나를 넘으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수가 없었다.

이때 또 쿵쿵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소리나는쪽으로 고개하나를 넘어가니 앞친데 덮치는 격으로 왜놈들앞에 난데없는 호수가 막아섰다.

(여기엔 호수가 없었는데…)

이고장지형을 손금보듯하는 기무라는 혹시 제가 착각이라도 했는가 하여 1대 5만 군용지도를 펴들었다.

군용지도에도 이 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호수가 갑자기 생겨났단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 쫓병들은 호수가로 달려가 넘적 었디여 물을 꿀꺽꿀꺽 마시었다.

물안에 비긴 왜놈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였다. 한놈이 물안에 침병 뛰어들어 미역을 감았다.

그러자 너도나도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꾸어꾸하며 물장난을 치고 자맥질을 하면서 좋아라 떠들어댔다.

왜놈들은 모든것을 까맣게 잊고 마치 미역을 감으려 일부러 여기 호수가로 찾아온듯싶었다.

이런 모양을 어이없이 내려다보고있던 기무라는 또다시 권총을 빼들고

《모두 미쳤는가? 호수를 빨리 건느라!》하고 소리쳤다.

호수랑안은 아찔하게 높이 솟은 절벽이여서 여기를 건느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은 비실비실 쫓겨 한데 모여 호수를 건느려고 하였다. 왜놈들이 몇걸음 더 호수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모두 물속에 빠지고말았다.

호수가 몇길이나 되게 깊었던것이다.

물속에 잠졌다가 다시 솟구치지 못하는 놈들도 적지 않았다.

할수없이 기무라는 나무를 찍어 떼다리를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왜놈들은 밀림속에서 나무를 찍어내여 떼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절반쯤 떼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저쪽 숲언저리에서 바람통이 터져나왔다. 삼시에 호수는 바다처럼 격랑을 일으키며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떼다리를 놓았던 통나무들은 여기저기 호반우에 흩어졌다.

물기둥이 하늘높이 솟구치고 주변에 비말이 휘뿌렸다.

그런속에서 왜놈들은 머리만 내놓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허우적거렸다.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놈들의 어지러운 비명소리가 호수가를 짝 메웠다.

이때 비명소리와 파도소리를 누르며 우리같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왔다.

《이 어리석은놈들아! 발자국에 고인물도 건느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보겠더구? 하하하, 이놈들! 이 무엄한놈들아!》

하늘에서 울리는 이 말을 듣자 기무라는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졸병들을 수장한 기무라는 말을 몰아 제혼자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았다.

뒤산에 오른 기무라는 호수를 내려다보았다.

《영?》

기무라는 입천정에 지레대를 질러놓은것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수가 신룡히도 발자국처럼 생겼던 것이다. 발자국처럼 길죽하게 생긴 그 호수로 사방 끝짜기에서 물이 콰콰 흘러들고 있었다.

(그럼 저 호수는 김일성장군의 발자국자리에 고인물이란 말인가? 내가 미쳤지, 저런 장수와 감히 맞서려들다니.)

기무라는 고개를 틀렁 떨구었다.

이때 《하! 하! 하!》하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또 하늘에서 울리었다.

기무라는 웃음소리가 나는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웃음소리는 백두산쪽 하늘에서 울려왔다.

기무라는 맥없이 쌍안경을 들어 구름속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의 웅자를 바라보았다.

기무라는 또한번 흠칠 놀랐다.

산마루에는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이 걸터앉아있었던 것이다.

발을 구르면 지동이 일고 손을 뻗치면 하늘의 구름도 잡아내릴 거인의 영상이 눈앞에 안겨와 기무라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백두산대장수의 한옆에 그와 쌍벽을 이룬듯 젊은 장수가 함께 앉아 3천리를 굽어보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뢰와 같은 웃음소리는 바로 그 젊은 장수의 웃음소리였고 하늘에서 울린 목소리도 그 장수의 목소리였다.

백두산에 걸터앉았던 젊은 장수가 발을 그대로 동해바다에 잠그

고 일어나서 하늘의 구름당반우에 얹혀놓았던 어머어마하게 큰 장검을 내리워 백두산을 솟들삼아 썩썩 갈고있는 모습이 보이였다.

기무라는 눈앞이 아찔했다.

(내가 감히 저런 장수들과 맞서려 하다니.)

버들버들 떨던 기무라는 온몸이 굳어져 돌미륵처럼 꼼작않고 서있었다.

칼을 다 간 장수가 하늘에 대고 장검을 휘두르자 번쩍하고 번개가 일고 파르릉 우뢰가 울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왜놈들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기무라는 저도 모르게 《아이쿠!》하고 비명을 지르며 목을 움츠렸다.

그는 언젠가 밀림속에서 나무에 쓴 구호를 본 생각이 났다.

《백두산에 광명성이 솟았다더니 바로 저 새장수가 났구나. 일본은 망했다!》

기무라는 또다시 하늘에서 시뻘건 화광이 비치자 눈을 까뒤집고 말우에서 툭렁 떨어졌다. 그놈은 다시는 떠나지 못하고 영영 숨을 거두고말았다.

바로 그해 여름 《대일본제국》도 망하였다.

〈지동이 일다〉

조선문학('92. 5)

소화 19년이라하면 1944년이다.

강남갔던 제비가 해묵은 제 등지로 날아오고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나던 계절이니 의례히 이무렵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즐거워지기 마련이다.

일본사람들이 신성시하며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124대 천황 히로히도도 못사람들처럼 봄을 맞을 때면 늘 마음이 즐거웠었다.

그런데 이해봄엔 왜 이리도 마음이 울적할까?

꽃을 각별히 사랑하는 천황이지만 정원에 아름답게 핀 꽃을 봐도 기쁘기 않았고 그 꽃을 찾아 반기는 나비를 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궁녀들의 교태도 천황의 기분을 돌려세우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천황의 입에서는 자주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여 나왔다.

일본은 지금 궁지에 빠지고 있다. 아니 궁지에 깊숙이 빠져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천황은 줄곧 이 생각뿐이었다.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천조대신)도 기울어져가는 《대일본제국》의 운명을 어찌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여직까지 천조대신은 일본을 얼마나 부흥시켰던가.

크지 않은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날이 갈수록 세력이 더 뻗쳐 마침내는 동양의 맹주로까지 되었다.

이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에게 천황은 물론 온 일본국민이 빌었다.

진자참배는 일본인들의 생활에서 뗄수 없는 부분이였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그들의 녀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다.

진자참배는 조선사람들에게도 강요되었다. 그것때문에 일제말기인 1944년까지 조선에 세운 큰《진자》만 하여도 60여개나 되었고 건설중에 있는것도 무려 939개나 되었다.

아무리 빌어도 천조대신은 기울어져가는 일본의 운명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천황은 일본에 닥친 불행의 화근이 조선에 있는것은 아닐가 생각하였다.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에서 보내온 밀보(비밀보고)들을 보면 모두 기상천외한것들이기때문이었다.

《대일본제국》에 선전포고를 한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의 항일유격대는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천변만화하는 슬법을 써서 100만관동군이 고양의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한다는 것이었다. 항일유격대를 추격하던 《황군》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바람에 몇천명씩 그속에 빠져 무리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바위들로 굳어지게 한다고도 하였다. 또 어느날밤에는 멀쩡하던 놈들이 백두산에 새로 솟은 새별에서 내뿜는 빛을 보자 모두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버렸다는것이였다.

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은 우는 소리를 했다. 축지법을 쓰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김일성장군 항일유격대는 오직 《하늘의 아들》인 천황만이 맞서볼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읽고난 천황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천황이라는 거룩한 체면도 건사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력대로 일본천황들은 즉위한후에 다른 나라에 가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지어 궁성밖을 나가본적도 별로 없었다.

히로히도의 경우만 봐도 황태자시절 몇군데 가보았으나 천황으로 즉위한후엔 늘 궁성안에만 박혀있었다.

례외이긴 하지만 괴뢰《만주국황제》로 부의를 들여앉힌후 그를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역으로 마중 나간적이 한번 있었고 간포대지진때 피해현장을 돌아본답시고 궁성을 나온적이 있었다. 그후 세월이 퍼그나 지나 일제가 패망한후 맥아더사령부에 항복하기 위해 흰기를 들고 궁성을 나왔던것도 들어야 할것이다.

이처럼 천황이 궁성밖을 나온것을 힘들게 꼽을 정도이니 조선에 가보겠다는것은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었다.

천황은 궁내부대신을 불렀다.

《짐이 조선을 다녀오려 하니 경은 이제부터 행차준비를 서두를 지어다.》

궁내부대신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처음엔 말귀도 알아듣지 못했었다.

《폐하, 무슨 말씀이시온지 소신은 그 뜻을 가늠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천황은 궁내부대신을 한동안 쏘아보더니 버럭 성을 내며 《어서 행차준비를 서두르라》하고 같은말을 되풀이했다.

궁내부대신은 또 뭐라고 조아렸다.

《천자이신 폐하께서 출궁하시여 나라안을 돌아보시는것도 실은 존귀하시고 위엄높으신 천황의 인품에 손상이 가는데 속곡인 조선

에까지 가신다는것은 하늘을 노엽힐 일이로소이다. 한번 더 심량하셔서 조치하옵소서.》

《경도 지각이 있으면 알겠거늘 난파선이 된 <대일본제국>이 바다물에 가라앉는것을 뵈히 보고도 가만있으란 말이나?》

궁내부대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옵니다. 일본은 난파선이 아니라 폭풍도 뚫고나갈 전함이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께서 우리 일본의 운명을 구원해주실것이옵니다. 오로지 폐하께서 옥체건강하셔야 제국에 안녕이 깃들것 인즉 조선에 가신다는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옵니다. 지금 조선에선 날마다 하오 4시가 되면 지동이 이는데 심상치 않은 일인줄로 아옵니다.》

천황은 펄쩍 놀랐다.

《지동이 일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조선에 지진이 인단말이나?》

《지진은 아니옵니다. 그 지동은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부터 뵈어나오는데 반도인들은 국운이 열릴 조짐이라고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국운이 열리다니? 그럼 조선에 국운이 열린단 말이나? 좀 자상히 말해봐라.》

천황은 안달이 났다.

《예, 하오 4시이후엔 먼저 백두산이 있는 함북도땅에 지동이 일고 그다음엔 함남도와 평북도땅이 흔들리고 차례로 평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땅이 움직인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폐하의 안녕을 어찌 담보할수가 있겠습니까?》

《괴이한지고, 그게 무슨 변고인고? 누구든 조선땅에 보내여 그 사실을 자상히 알아올지어다.》

천황은 이렇게 말하고 피곤한듯 옥좌에서 일어나 내실로 들어가 버리고말았다.

다음날 천황은 제 동생을 직접 조선에 보내라는 어지를 내렸다.

그리하여 천황의 동생은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가 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은곳은 부산이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 하오 4시가 좀 지나자 정말 경상도땅이 부르르 떨리었다.

우르릉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가 잠시동안 났다. 지진은 아니었다.

(이것이 백두산에서부터 인다는 지동이란 말인가?)

그는 더럭 겁이 났다. 누구보다 지진세례를 많이 받아온 일본인으로서 땅이 흔들리는데는 여간 겁이 나지 않았다.

그는 그길로 땡소니를 쳐 궁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동생에게서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천황은 더 골머리를 앓았다.

천황은 제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함부로 궁성을 나설수도 없었다.

그날밤 갑자기 붉은 기운이 궁성에 비끼여 불이 타오르는것 같았다.

천문을 맡은 관리가 말하기를

《이상한 기운이 궁성에 내리비긴것을 보면 나라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아, 하늘이 천자를 이처럼 몰라보시며 신명이 이다지도 무심하단말인가? 일월이 명랑하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단말이나?》

천황은 더는 궁성안에 박혀있을수 없었다.

그는 즉시 궁내부대신을 불러 조선으로 떠날 차비를 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천황의 행차를 말리지 못했다.

천황은 몇 안되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모르게 조용히 궁성을 나섰다.

겉이 많은 그는 백두산에서 제일 먼곳에 있는 제주도에부터 가자고 하였다.

제주도에 간 황제는 또 질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백두산에서 제일 먼 제주도땅도 바로 그 시간에 웅— 소리와 함께 드르릉 하고 지동이 일었던것이다.

천황은 생각하면 할수록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해난 천황은 본토에까지 가볼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천황은 그 시로 돌아와 입궁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가 조선땅 제주도에 갔었다는 사실을 절대비밀에 붙이라고 엄명을 내렸다.

천황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정말 신령스러운 그 백두산의 조화일가? 머리를 싸쥐고 고민하던 천황은 낮말은 새한테서 듣고 밤말은 쥐한테서 듣는다는 피많은 한 신하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이제 당장 조선으로 건너가 지동이 이는 원인을 알아오

라.》

천황은 그를 은밀히 조선으로 파했다.

그 신하는 조선으로 건너가 변복을 하고 사람들속에 들어갔다.

로인으로도 변장하고, 아이로도 변장하고 지어는 아낙네로까지 변장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귀를 기울였으나 별로 신기한것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다만 백두산장군별결에 새로 모성과 자성이 자라나 그 삼태성이 광휘로운 빛을 뿌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동이 일군한다는것밖에 더 알수가 없었다.

신하는 할수없이 궁성으로 되돌아가 천황한테 그대로 여쭙지 않을수 없었다.

《뭘이 어쨌다구? 백두산에 삼태성이 뒀다구?》

천황은 전몰하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뜨자 궁성의 유리창이 깨여지고 기와장이 날아나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실은 그때부터 《대일본제국》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것이다.

(아, 일본은 망하고말았구나!)

천황의 뇌리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비졌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멀리 백두산쪽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세개의 큰별이 명멸하고있었다.

천황은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그러나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쉽게 물러설수는 없었다.

그는 긴급 《어전회의》를 열어놓고 이른바 《2천년래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궁궁이를 하였다.

력사적사실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제는. 1944년 7월 21일 군부살인두목의 하나인 악명높은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를 제9대 조선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놈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후 한해가 지나 일제는 끝내 망하고말았다.

극동군사재판소에서 오그랑수를 써 겨우 벗어난 천황은 그뒤에도 조선땅에 지동이 일군하던 원인을 몰라 궁금해하였으나 종시 알지 못했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밀영이 개영된후 고향집안에 있는 쪽무이지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드디어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던 이 전설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일제말기 우리 나라 땅에 때없이 지동이 일군 것은 그때마다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쪽무이지도를 가지고 지도놀이를 하셨기때문이라는 것이다.

함북도지도쪽을 쥐시면 함북도땅에 지동이 일고 평남도지도쪽을 만지시면 평남도땅이 움썩했다고 한다.

천하술법을 다 지니시고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천지조화를 부리시었다는것이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해방직후 청진시 수원인민학교를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왜놈들이 쓰던 지구의를 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지구의에 그려진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다가 왜놈들의 땅과 우리 나라를 빨간색으로 같이 칠해놓은것을 발견하시였다.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황국신민화》를 고창하던 왜놈들이 조선과 일본을 한나라로 표시한 것이었다.

적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턱으로 일본지도를 새까맣게 칠해놓으시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날은 일본땅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뒤덮이면서 느닷없이 소낙비가 한동안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한몸에 다 지니고계신다고 즐겨 말하곤하였다.

2. 해외인사(언론)등을 통한 업적찬양 관련

가. 해외언론매체를 통한 업적 찬양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선식 사회주의를 훌륭하게 건설하고
계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다〉

로동신문('91. 12. 2)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가고 계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입니다.

그이는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식사회주의를 훌륭하게 건설하고계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입니다.

블레쥬 특간호(인도) '91.11.11

〈인민의 지도자 김정일동지〉

로동신문('92. 1. 4)

인민에 대한 육친적사랑은 김정일동지의 모든 사색과 탐구의 출발점을 이루고있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을 내놓으시고 하나의 사업을 설계하시여도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고 짐을 한채 짓고 공장을 하나 일떠세워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먼저 생각하신다.

그이의 이런 사랑에 떠받들려 도시들에는 현대적인 새 거리들이

수많은 일떠서고 농촌들에서는 리상촌들이 솟아나고있다.

파키스탄 신문 「니다에 와꾸뜨」

로동신문('92. 1. 4)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현실을 마련한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자주시대의 향도성이시다.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 일어난 전변은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 사회 건설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앙골라 TV방송

로동신문('92. 1. 4)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으시고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시고 온사회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해나가고계신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강철의 대오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백전백승의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짐바브웨 신문 「헤탈드」

로동신문('91. 2. 21)

조선에서 창작된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 등 사
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 세계에서 커다란 절찬을
받고있다.

조선의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된 전변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을 완벽하게 체현하시
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가나신문 「더에코」

로동신문('92. 2. 21)

김정일동지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사상리론적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정석화하신것이
다.

르완다 신문 「라피까」

〈사회주의 조선의 발전과 김정일 각하의 공헌〉

로동신문('92. 2. 20)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뿐만아니라 과학 기술분야에서도 혁명을 일으키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서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히시고 이 사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그이의 올바른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의 과학기술은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인도신문 「블리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

천리마('91. 1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이 인민대중에게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 충직한 일꾼들이 인민의 총복으로 일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모든것을 다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 있다.

니까라과 신문 「엘 누에보 디아리오」

로동신문('92. 2. 20)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도하시며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계신다고 전하였다.

방송은 그이께서는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지도하시여 조선에서 문예부흥을 이룩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건설에 구현하고 계신다고 방송은 전하였다.

방송은 그이는 로동자, 농민, 인텔리들 속에서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인민의 지도자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모스크바 방송 ('92. 2. 11)

로동신문('92. 2. 20)

김정일각하께서는 뛰어난 재능과 고상한 품격을 지니신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그이는 조선식사회주의건설을 훌륭히 령도하고계시는 인민의 지도자이다.

김정일각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당을 강화하고 그 두리에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식사회주의는 참

다운 사회주의이다.

이탈리아 「치따아페르따」방송

〈단결을 위한 투사〉

로동신문('92. 2. 19)

복잡한 국제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은 자립적인 토대우에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 기타 사회성원들을 영원한 동지로 여기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월한 역할을 하고계신다.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할데 대한 확고한 사상을 견지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의 존엄한 로정의 목격자로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민족의 위대성은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단결에 있다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쿠바신문 「그란마」 ('92. 2. 15)

로동신문('92. 2. 19)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시다.

레바논 인민목소리 방송

〈혁명의 진로〉

로동신문('92. 2. 19)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때부터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분 수령의 령도밑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과 난관을 이겨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나라를 건설하고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포르투갈 신문 「노띠씨아스 다아마다라」('92. 2. 6)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상가〉

로동신문('92. 3. 7)

신문은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었고 김정일동지께서 계승발전시키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국가정치활동가, 사상리론가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권위있는분이시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신문 「아르체날레쯔」('92. 2. 20)

〈김정일각하께 원수칭호를 수여〉

로동신문('92. 7. 22)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석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시는 길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탁월한 지도자의 천품을 지니고계신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교육가이시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전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김정일각하는 일찌기 김일성주석의 군사사상과 리론, 주체전법을 체득하시고 자위적국방건설의 벽찬 투쟁속에서 탁월한 령군술, 풍부한 군사활동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회세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의 군사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혁명전쟁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는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완전무결하게 밝혀주시였으며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인물을 지니고계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무력의 령도자로서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신다.

그이의 품은 인민군장병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일당백의 용맹과 무비의 담력을 키워주는 한없는 은혜로운 품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혁명무력은 김정일각하를 최고사령관으로, 원수로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니카라과 신문 「엘 누에보 디아리오」

나. 해외축전을 통한 찬양

로동신문 ('92. 2. 12)

인도공화국의 수도 뉴델리에서 세계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들은 뜻깊은 이 자리에서 경사스러운 탄생 50돌을 맞으시는 각하께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각하

각하의 현명한 지도밑에 주체사상이 현실화된 인민대중 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가 활짝 꽃핀 조선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인류의 스승이신 당신께서 계시고 자주외교의 기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는 한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신심과 기백에 차넘쳐 있습니다.

세계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일동

1992년 2월 9일 뉴델리

존경하는 지도자각하

우리들은 오늘 각하의 탄생 50돌에 즈음하여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관한 우간다전국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쁨을 안고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탁월한 지도자이신 각하께 이 편지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우리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하께서 바치고계시는 정력적인 노력과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이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각하는 비범하고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의 진보와 번영, 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한 과학적인 지침을 마련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십니다.

또한 각하는 주체사상을 가장 어렵고 복잡하였던 조선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인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관한 우간다전국토론회 참가자일동

1992년 2월 7일 캄팔라

로동신문 ('92. 2. 24)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중앙위원회 전체 성원들은 주체사상에 관한 제12차 뽀르뚜갈전국토론회를 성대히 진행하고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 이 편지를 드리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일찌기 주체위업의 계승자로서의 품모와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시키시였으며 조선혁명의 거창한 대오의 중심에 서시여 그 흐름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성과들이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노력과 잇닿아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관한 제12차 뽀르뚜갈전국토론회 참가자일동
1992년 2월 8일 리스봉

로동신문 ('92. 3. 2)

만민의 축복속에 친애하는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공동의 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주체사상연구 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를 결성하고 주체사상과 교육에 관한 전국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한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안고 각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삼가 올립니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현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계시는 사상과 리론의 탁월한 영재이시며 인류

력사상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뛰어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천품으로 겸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이십
니다.

각하께서는 격변하는 정세의 흐름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주체
사상을 구현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령, 당, 대중이 일
심단결된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으며 그 불
패의 생활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계십니다.

주체사상과 교육에 관한 나이제리아전국토론회 참가자일동
1992년 2월 13일 이바단

로동신문 ('92. 3. 4)

우리는 오늘 짐바브웨공화국의 수도 하라레에서 조선로동당의 사
심없는 협조밑에 당건설경험에 관한 발전도상나라 당들의 제 3차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커다란 기쁨을 안고 당신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조선로동당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
의 기치를 높이 들고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세인을 경탄
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세계인민들의 자주위업에 귀중
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오늘과 같이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불
패의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세련된 참
모부로 강화발전된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정도의 결과입니다.

당건설경험에 관한 발전도상나라 당들의 제 3차토론회 참가자일동
1992년 2월 28일 하 라 레

로동신문('92. 4. 23)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주체위업을 불패의 위업으로 만대에 빛내 이시고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조 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군사의 영재이시며 영웅 적조선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원수칭 호를 수여받으신데 대하여 삼가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백두의 광명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빛나는 항일의 혁 명전통에 억센 뿌리를 둔 조선인민군을 참된 수령의 군대, 당의 군 대, 인민의 군대로 키워주심으로써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철옹성같이 수호하여 주시고 공화국을 세계인류가 우러러 바라보는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위업의 성세로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였습니다.

문무와 충효를 숭고한 높이에서 겸비하신 영명한 지도자동지께서 특히 령활무쌍한 령군술로 미제와 세계제국주의반동들의 간악무 도한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을 걸음마다 산산조각으로 분쇄하 심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세계만방에 떨치시고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을 무한히 고무하

여주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신 영명한 지도자동지에 대한 해내외 온 겨레의 무한한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주체위업의 광명한 승리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크나큰 경사입니다.

조국의 무궁한 튼성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원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92년 4월 21일 일본도쿄

로동신문('92. 4. 24)

경애하는 원수각하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군의 가장 저명한 창건자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위업의 가장 참된 계승자이십니다.

위대한 수령각하의 가장 권위있는 보좌관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발전되고 불패의 군대를 가진 강국으로,

조선인민에게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주체의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캄보디아 최고민족이사회 의장)

1992년 4월 21일 평양

로동신문('92. 4. 28)

존경하는 각하

우리들은 오늘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회의를 진행하고 각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각하를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이 반드시 90년대에 나라를 통일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각하께 우리들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참가자 일동

1992년 4월 4일 메델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스러운 조선인민군의 창군절에 즈음하여 군사의 영재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김정일원수께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끝없는 경모심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군사의 영재이신 영명한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군대가 많고 많아도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처럼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조국과 민족에 무한히 충실한 그렇듯 참다운 무장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지략과 만능의 령군술로 주체적인 군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출하시여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불후의 공적을 높이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십니다.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원수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반미자주통일운동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 조국통일의 새날을 기어 이 앞당길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영명한 김정일원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하여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의 향도성이시며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김정일원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
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1992년 4월 25일 서울

로동신문('92. 9. 19)

존경하는 김정일원수각하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귀국
의 수도 평양에 온 우리 태권도인들은 존경하는 원수각하께 다함없
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이 편지를 올리게 됨을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고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원수각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큰
온정이 계셨기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태권도의 강화발전과 이번 선수권대회의 가장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 존경하는 김정
일원수각하께 충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자일동

1992년 9월 16일 평양

존경하는 김정일원수각하

우리들은 귀국에 와서 존경하는 김일성대원수각하와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하고 활기에 찬 생활모습과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인민의 나라를 힘차게 건설하고있는 사회현실을 직접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이번 회의기간에 조선의 민족무용예술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강습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각하께서 흥미있는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완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조선의 무용예술은 각하의 탁월한 문예사상과 령도가 빛나게 실현되어 사람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용리사회 제10차총회, 국제무용토론회,
자모식무용표기법 국제강습참가자일동
1992년 9월 30일 평양

다. 해외인사들의 칭송 반향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양양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로동신문 ('92. 1. 23)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노우에 슈하찌가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70년대로부터 80년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것처럼 눈부신 성과가 이룩된것은 그이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조선인민이 일심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나는 주석께 무한히 충실하고 그이의 군사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기에 위업은 더욱 철저히 고수되고 빛나게 완성되여 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흠모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존함은 반제,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고 말하였다.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

로동신문 ('92. 1. 24)

-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을 찾은 일본사회계 인사 와다나베 에쓰오는 김정일비서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방문한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두의 정기를 안으시고 탄생하신 그이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대전의 준엄한 시련을 체험하시며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예지와 슬기를 키워오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는 찬란한 아침이 시작된 이 력사의 집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갈수 있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 핑고 주체사상연구대표 비긴두 밀란두는 세계의 명산 백두산을 가지고 있는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면서 주체조선의 향도의 별이 솟아오른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 파키스탄 카라치청년들의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자베드 안싸리는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처럼 설한풍 휘몰아치고 총포탄 울부짖는 속에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위인의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혁명투쟁속에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예지를 키워오시였다.

참으로 그이의 탄생은 조선의 새 아침을 안아온 찬란한 해돋이였으며 인류가 받아안은 커다란 행운이다.

진정 그이를 모신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영광이며 행복이다.

〈김정일 각하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사상 이론의 영재〉

로동신문 ('92. 1. 29)

- 페루 안카스국립종합대학 총장인 교수 호세나르바에스 쏘또는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조선 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일찌기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비롯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확한 투쟁 로선과 구호들을 제시하시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신 결과이다.

조선의 현실은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사상리론의 정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그이의 사상리론을 혁명의 무기

로 삼고 있으며 조선을 따라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친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 인도 델리종합대학 교수, 박사 엠.엠. 버르마는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활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고상한 리념과 지금까지 인간의 사색이 미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천리혜안의 천재적인 예지로 하여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고 있다.

〈향도성을 칭송하는 만민의 목소리〉

로동신문 ('92. 2. 1)

- 페루 치끌라요종합대학 교수 그리발도 모랄레스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상에는 령도자들이 많지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리익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는 위인이 있다는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조선을 방문하고서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정치가이시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 그이의 존함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하기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그이를 향도성으로 우러르며 따르고 있다.

그이께서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인류리상사회의 향도성이신 김정일동지 만세!

○ 말리사회계 인사 우마르 까누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과 리론들은 혁명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높은 존경을 받고 계신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김정일동지를 시대의 향도성으로 우러르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 있다.

○ 파키스탄 카라치청년들의 김일성주의연구위원장 자베드 안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인류력사는 수많은 혁명가들과 수령들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처럼 설한풍 휘몰아치고 총포성 울부짖는 밀림속에서 탄생하신 위인의 전설적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혁명투쟁속에서 성장하시면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예지를 키워오시였다.

참으로 그이의 탄생은 조선의 새 아침을 안아온 대경사였으며 인류와 력사 앞에 차례진 크나큰 행복이었다.

- 르완다의 이름있는 시인 하쿠즈웨에주 죠세프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시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오 향도성 향도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조선의 향도성으로

전세계의 향도성으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였어라

...

오 향도성 향도성!

김정일동지

당신은 자주시대의 향도성

당신은 인류의 찬란한 미래

우리를 새 사회에로 인도하시라

인류는 당신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리노라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조선〉

로동신문 ('92. 2. 5)

-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일군인 루이스 도우꾸이 빠울 루 드 까스뜨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답하고 통이 큰 작전과 정력적인 령도로 인민을 위한 대기념비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그이의 령도가 닿는곳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 위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찬란한 현실을 펼쳐놓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 인도학계 인사 비. 엠. 자우하리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천리마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온 나라에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10년을 하루로 앞당기는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무비와 담력으로 통이 큰 작전을 벌리시며 기적적인 속도를 련이어 창조하시였다.

〈향도의 빛발 우러르며 따르는것은 시대의 거세찬 흐름〉

로동신문 ('92. 2. 10)

그이는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에서 탄생하셨네
아 영명한 지도자
그 이름 김정일동지
인류에게 봄을 주시네
그이의 사상 세계를 밝혀주네
향도의 빛발 조선을 비치네
아 그이는 김정일, 김정일
그 이름 위대하여라
인류는 그이께 영광드리네
인류는 그이를 노래하네

이 시는 자이르 킨사사종합대학의 한 학생이 쓴것이다. 시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마음이 구절구절마
다에 력력히 나타나 있다.

그는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
각하의 위대성을 체득하고 그이의 유명한 로작들을 학습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이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십
니다.》

○ 주체철학의 진리를 받아안고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중에는 아세아지역주체사상 연구소 서기장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도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전인류가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은 실로 비길데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 보급하는 활동에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대를 이어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로 곳곳이 걸어가리라는것을 믿어주십시오.》

-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이 삼가 올린 나무공예품(목금모형)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끝없는 열정을 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소문도 하고 사람들도 보내여 진귀한 나무들을 구해왔다. 그러나 100년 이상 자란 참나무만은 종시 구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위대한분에게 올리는 선물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제일 높은 산인 해발 3,920미터의 찌리뿌그란데산에 해묵은 참나무들이 있다는것을 알아내고 무성한 수림을 헤치며 탐색을 계속하여 100년이상 자란 참나무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한 탁월한 령도〉

로동신문 ('92. 2. 13)

- 마다가스까르의 언론계인사 라꾸뚜누엘 마르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위대한분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확한 투쟁로선과 투쟁구호들을 제시하시고 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계신다.

그이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에서는 전례없이 방대한 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 르완다사회계 인사 루다홍가 이냐쓰는 조선에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서해갑문과 인민대학습당, 5월 1일 경기장을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일떠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족의 위대성은 나라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올바른 지도사상을 가질 때만이 발현될수 있다.

조선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에 그 이름 떨치고 있다.

- 중국 로녕성 진흥전람관대표단 단장 류언장은 평양시내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걸출한분이시며 건설의 영재이시다.

웅장화려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품모의 상징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자랑떨치고 있다.

<김정일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92. 5. 22)

- 레바논 다르 알 탈리아출판사 사장 무함마드 싸이드 함마디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인민적품모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나는 언젠가 기록영화에서 그이께서 한 인민군군인을 앞뒤로 둘러세워보기도 하시며 그의 신발에 이르기까지의 옷차림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

진정 그이는 전사들을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일일이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지도자이시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가장 훌륭한 군령도자로 공인받고 계신다〉

로동신문 ('92. 5. 24)

-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야씨르 아라파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결정이 발표된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당신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높은 존경의 표시로 됩니다.

-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위원장인 대통령정치고문 다비드 키비랑고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에게 특출한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이미 전에 원수칭호를 받으셔야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신께서 공화국원수로 추대되신것은 조선에서 이룩된 특출한 성과들과 인류가 도달한 수준에서 보아도 웅당한것입니다.

- 캄보쟈국가수반이며 캄보쟈최고민족리사회 의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친애하는 김정일원수각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력한 군대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주체의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현시대 사상리론의 거장이다〉

로동신문 ('92. 7. 15)

- 애급사회계 인사 나빌 아호마드 무쓰타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자주독립국가건설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신다.

-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뱌까 란팔라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커다란 흥분속에 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류가 것처럼 갈망하여온 참다운 인간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 관한 길이 환히 명시되어있는 그이의 문헌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진정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세계혁명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 페루 까하마르카국립종합대학교수 에밀리오 까추 가요소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정력적인 활동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적인 품모를
지니고 계시는 위인이시다〉

민주조선 ('92. 10. 21)

-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성원 하시모또 아끼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참다운 인민적지도자의 귀감이시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따뜻한 손길로 세심히 보살펴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도를 하실 때에도 생산실태와 함께 반드시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몸소 풀어주신다.

- 기네 꼬나크리종합대학 교수 모하베드 디우헤 포파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묘향산의 높고 험한 산밭도 오르시여 등산길까지 잡아주신 친애하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성에 머리가 숙여

진다.

정녕 그이는 인민적인 품모를 지니고 계시는 위인이시다.

나는 조선인민이 왜 그토록 자기의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러러따르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라. 김정일 찬양작품 발표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로동신문 ('92. 1. 13)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조선인민의 앞길 휘황찬란하고
사회주의위력 더 높이 발양되거니
조선의 이 억센 기상앞에
세계반동들 전몰하네

전세계인민들 김정일지도자 우러르며
자주적인 새 세계 창조에 떨쳐 나섰거니
만민의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 영광영광을!

엠.키코티 (탄자니아 혁명당 비서)

〈김 정 일〉

조선예술 ('92. 1)

당신은
위대한 아들

세계를 고무하는 태양
돌을 깨여 길을 닦는 사람도
밭을 가는 농민도
당신에게서 고무를 받고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께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나니

당신은 조선의 넋
당신은 피압박인민의 구세주
당신은 인정과 덕성을 체현하시고
인민 위해 헌신하시는
사랑과 희망 고무의 상징
인민의 건강과 행복은
당신의 첫째가는 관심사
모든 가능성 찾아
사소한것까지 보살피시는
위대한분
실천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확인하시였어라
인도주의와 인류보다 더 위대한것 없음을

비슈와나스 (인도시인)

〈오 향도성 조선의 자랑이여〉

조선여성 ('92. 1)

2월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축원의 인사 드리네

오 조선의 향도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의 향도성

김일성주의기치 높이 드시고

비범한 예지로 자주의 새 세계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태양

그 빛발아래 력사는 창조되고 시대는 전진하네

위대한 조선의 향도성

그이는 주체위업의 계승자

창조와 건설의 탁월한 영재

그이께서는 조선을 빛내이시며

온 인류가 바라던 인민의 락원 일떠세우셨네

온 세상 사람들 그이를 우러르네

오 향도성 그 이름 빛나라 김정일

세계 수억만 사람들 경모의 정 안고 칭송의 노래 드리네

그이는 조선의 자랑 시대의 영광이여라

이빙가 문바 더 미싸프 (가봉시인)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복의 노래〉

로동신문 ('92. 1. 24)

오늘은 2월 16일 잊지 못할 영광의 날
항일전의 총성 높은 백두산에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날
그이의 탄생은 인민들에게 행복이였고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멸망의 선고였어라
...

오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민이 받들어 모신 주석의 계승자
인민을 세 사회 건설에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인민의 진정한 지도자
인민들이 우러르며 따르는 탁월한 스승
김정일동지 그이는
주석께 무한히 충실하신분
김정일동지 그이는
주석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분
김정일동지 그이는
혁명과 건설의 진두에 서계시는분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만년장수는
우리의 영광이며 행복으로 되나니
세계인민들은

그이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삼가 축원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오마리 에이취 (탄자니아 시인)

〈김정일 그이는 영원한 북극성〉

조선문학 ('92. 2)

김정일 그이는 20세기의 영재
그 언제 인류가 본적 있었던가
음악과 무용 가극 예술의
오늘같은 찬란한 개화를

김정일 그이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자주의 길 밝히는 조선의 북극성
김정일 그이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
불멸의 사상리론으로 앞길 밝혀주시네
김정일 그이는 통일된 조선의 희망
주체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들을 고무하시여라

오, 향도의 별 김정일
그 이름 통일된 조선의 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지리
주체의 빛발아래 빛나리

오 김정일 그이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명하신 지도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신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의 영광 영원하리

김정일 그이는 인민대중의 친근하신 벗
인류의 자랑
압박받는 인민대중의 열렬한 옹호자이시여라

김정일 그이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평화와 사회적 정의단결을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마를줄 모르는 정신적양식을 주시여라

김정일 그이는 문학과 예술의 영재
세계 피압박인민들 영광의 노래드리네
가장 뜨거운 인사드리네
우리 언제나 그이와 함께 있으리

고뽀도훈 뽀 클로때르 (베닌 기술자)

〈2월 16일〉

조선예술 ('92. 2)

항일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고
조선인민이 새날을 내다보며
백두산을 우러러
정의를 향해가던 그 준엄한 시절에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였어라

조국광복 이룩한 항일투사들의 대오속에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였네
해방된 조선은 더없는 감격으로
그이를 떠받들었어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공산주의사회에로 줄달음치는
혁명의 폭풍속에서 성장하신 지도자동지
그이의 탄생기념일을 노래하네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미비아유격대원들도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청년들도
조국통일을 부르짖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축하의 노래를 드리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사회주의 만세!
찬란한 주체문학예술 만세!
조선인민 만세!
김정일동지 만세!

파우스틴 피. 마강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종합대학 학생)

〈백두산의 위력〉

로동신문 ('92. 2. 12)

승업하여라 백두산이여
그대는 조선의 미래, 인류의 앞날을 안아키웠나니
그대 정기, 그대 슬기, 그대의 기상 온몸에 지니시고
김정일비서께서 향도성으로 솟아오르시여
화산의 분출마냥 정력적활동으로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떨치시니
제국주의 검은구름, 기회주의 회색바람 가셔지고
사회주의 새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라
세계는 환희에 끓고 칭송의 송가, 신념의 노래 부른다

백두여 그대는 천년묵은 바위우에 새겨넣으라
인류의 향도성, 사회주의태양 김정일비서의 존함을!

아르야 란 딸라

〈영광의 50성상〉

로동신문 ('92. 2. 14)

꽃으로 수놓아진 50성상입니다
위훈으로 빛나는 50성상입니다

당신의 손길아래
현대적공장들이 일떠서고
풍요한 별들이 펼쳐졌습니다

친애하는 당신께서 꽃피워주신
국제친선의 과원에
온갖 열매들이 주렁졌습니다

조선은 친선과 우애의 샘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동지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의 중심이십니다

승리와 영광의 력사입니다

당신의 50성상은

마마두 아부칸 (세네갈 청년작가협회위원장)

〈그이는 강철의 령장〉

로동신문 ('92. 2. 14)

패기와 열정

풍부한 경험을 지니시고

주석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탄생 50돌을 맞으시여라

조선은 알고 있다네

인민의 령수로 되신 그이

조국통일의 숭고한 위업 위해

인민을 령도하시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백배로 강해지셨음을

조선은 잊지 못하네

반세기에 걸친

생의 력사 빛내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전투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여

투쟁속에서 성장하신

그이

천리마를 타고달리는

조선을 이끄시며

21세기의 입구에서

거창한 투쟁을 벌려나가시네

강철의 령장 김정일

그이께서는

불패의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을 확신성있게 이끄시네

드팀없는 승리로

금강산노을처럼 빛나는 그 최후승리로

원스똥 오릴료 (리마싼 마르꼬스국립대학교수)

〈김정일동지 따라 앞으로〉

로동신문 ('92. 3. 19)

김정일동지 당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계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당신은 조선인민의 령수

당신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조선인민과 인류에게
그 심오한 진리를 안겨주셨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은 당신의 사랑과
지도를 받고있어
원수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인류리상의 상상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라

당신은 위대한분의 후계자
당신은 조선을 떠메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당신이 이룩하신 모든 업적

앞으로 이룩하실 모든 성과를 축하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들은 경의를 드리네

영원히 영원히 빛을 뿌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빛발안고 나아가노라

주체사상따라 앞으로

김정일동지 따라 앞으로

아킴 싸무콘다 (잠비아 시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만세!〉

로동신문 ('92. 3. 23)

김정일

그 이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합니다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박동

그이의 사상은 투쟁에로 부르는 승리의 기치

그이는 사회주의길을 밝히는 등대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화불
그 화불 밝게 비쳐
우리도 통일조선의 그날에 살거니

동방에 솟아오르신 별이시여
솟는 해의 미소이시여
영광의 상징이신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조선은 굳건한 나라
조선은 굳건한 사회주의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져도
조선은 반제의 길에 굳건히 서있습니다

조선은 혁명가들의 상징
조선은 사회주의의 상징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우리의 스승

그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서운것 없고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투쟁의 승리를
우리의 미래를

혁명하는 인민들은 우러릅니다
그이 계시는 조선을
혁명하는 인민들은 바라봅니다
주체조선에 활짝 꽃필 인류의 미래를

그이의 탄생 50들은
조선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
그이의 탄생 50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뜻깊은 명절

위대한 수령님의 계승자이신 그이를
우리모두 높이 모시렵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50돌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만세 만만세!

까말 알 굴라 (팔레스티나 시인)

〈주체의 닻〉

로동신문 ('92. 5. 27)

주체의 닻을 내렸기에
사회주의의 닻을 내렸기에
세상에 변화의 바람 몰아쳐도
천리마조선의 배는
드놀줄 몰라라

거치른 세계의 바다우에
어떤 사람 겁을 먹고
어떤 사람 모든걸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 허우적거리며
타락의 춤을 추어도
조선의 닻은 광풍앞에 드놀줄 몰라라

보라 저 무서운 폭풍을
끓주린 사자같은 제국주의폭풍
사납게 세계를 휩쓸어도
심리전의 미싸일을 발사하며
경제봉쇄의 웨침 부르짖어도
신념의 닻은 끄떡없어라

가련도 하구나

제국주의광풍에 붕괴된 수난자
하루아침에 밀뿌리채 흔들려 허물어진
이름높던 고귀한 전취물들
꺼져버린 어린이들의 그 희망의 해불들

허나
주체사상탑은 곳곳이 솟아있고
인민의 심장속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튼튼히 뿌리박고
세월의 시련을 이겨내며
영용하게 수호되고 있거니
인민들은 전생애를 바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고 따르며
주체사상의 타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나니
단결의 기발
단결의 닳은 확고부동하여라

아이자이아 콰오 모리슨 (가나 시인)

로동신문 ('92. 6. 5)

조선의 위대한 아들
온 누리에 광명을 주시는 태양이시여라
석공들 일하는 채석장에도
농민들이 밭을 가는곳에서도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조선의 심장이시여
조선의 녀이시여

당신은 근로하는 인민들
전세계인민들의 구세주이시여라
고상한 인간성을 체현하신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시여라

인민의 행복 위해 헌신하시고
그들 위해 전력하시나니
그들의 안녕과 행복은
당신의 첫째가는 관심사
온갖 가능성을 찾아내어
세심히 보살피 주시여라

당신의 사상은 걸출하고
당신의 공적은 빛나거니
당신은 영원한 진리로 간직하시였어라
사람보다 더 위대한것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비슈와나스 (인도 시인)

〈위대하여라 김정일동지〉

민주조선 ('92. 10. 20)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의 행복위해
자신의 모든것 바치시는분
인민은 그이를 믿고 따르네

그이를 모신 인민
온갖 원쑤 무찌르며
행복위해 투쟁한다네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네

그이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민은 효성다해 그이를 따르네
의리와 신념으로 그이를 모시네

걸음걸음 새 구상 펼치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헤쳐가시는 그이
인민과 생사고락 나누시며
불면불휴의 로고 바쳐가시네

그이의 따뜻한 온정
불치의 병도 씻은듯 낮게 하고
그이께서 결심하시면
온갖 풍파 밀려가고
온 나라가 혁신으로 끓는다네

호쎬 안또니오 떼노리오 (니카라과 작곡가)

3. 『남조선인민』들의 김정일 흙모날조 관련

<민족의 향도자, 위대한 스승>

로동신문('91. 11. 20)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읽은 서울의 한 력사학자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정치가는 위대한 사상가여야 한다. 참으로 김정일선생은 우리 민족 모두가 따라야 할 대사상가이시며 우리 민중이 자기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여야 할 민족의 향도자, 위대한 스승이다.

○ 서울대학교의 조 아무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은 절세의 위인이시다. 높은 식견과 비범한 예지로 주체의 사상리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세기의 위인 김정일선생님을 향도의 구심점으로 모신것은 참으로 우리 민중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 남녘겨레들의 마음속에서 날로 더 강렬해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은 《백두회》회원들이 만들어 배포한 인쇄물에 담겨진 글발에도 력력히 어려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자.》

《7천만 겨레를 양양한 미래에로 인도하시는 김정일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 서울의 윤 아무개 로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고향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북 민중 모두에게 밝은 웃음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은 다름아닌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이시라는것을 잘 알게 되었다.

- 전남대학교 최 아무개 학생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를 결심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바치는 각계 애국민중의 충성심이 더 높이높이 불붙도록 하자.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주체의 해발이 비치고 충성심이 활활 타오르게 씨앗을 더 많이 심어 나가자.
- 전라남도의 박 아무개라는 회사원은 《어서 빨리 나라가 통일되어야 우리 근로민중이 잘 살수 있다.김정일선생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기약되어 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면서 래일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김정일선생님께서 계시어 통일의 밝은 서광이 비쳐오고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기약되어 있다>**

로동신문 ('91. 11. 30)

- 남조선에서의 한 방송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부산에 사는 국민학교의 한 교원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노래 《그리운 향도성》을 지어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
-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 깊이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은 책 《현대조선과 김정일비서》를 읽은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의 이야기에 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절세의 영걸이신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자주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에 대가 이어졌다. 참으로 그분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모신 것은 우리 민족민중의 대행운이며 무상의 영광이 아닐수 없다.》

- 서울의 한 교수는 제자들앞에서 《력사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쌓아올리신 불후의 공적을 길이 이어나가며 빛내이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영명하신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모신것은 민족의 대행운이다.》

- 지난 6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일대에서 우리 인민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연색사진이 주민들속에 배포되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초에는 서울시내 중심거리에서 그이를 높이 칭송하는 글발이 씌여진 인쇄물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 또한 전라북도 리리와 경상남도 마산, 창원 등지에 있는 기업체들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흠모하여 쓴 인쇄물들이 나뉘어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열망으로 부풀어오르게 하였다.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은 걸출한 위인〉

로동신문('91. 12. 16)

- 태백산기슭의 어느 한 마을 로인들은 저녁이면 김로인의 집에 모여와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민족의 향도성에 대한 이야기로 밤가는줄을 모르군 한다고 한다.

어느날 김로인은 집으로 모여 온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민중이 것처럼 뜨거운 눈길로 우러르던 백두산의 어린 장군별이 오늘 주체의 하늘에 향도의 거성으로 높이 솟아올라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밝히며 반짝이고 있으니 어찌 우리 이남민중의 가슴속에서 흠모와 자부의 격랑이 일지 않을수 있겠는가. 백두산의 장군별이 높이 떠서 왜놈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평양하늘에 향도성이 떴으니 머지않아 미국놈이 망하고 조국이 통일될 징조이다.

- 서울의 어느 신문사에 있는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였다.

우리 민족이 오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통일의 구성으로 함께 높이 모시였으니 이런영광, 이런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참으로 조국의 미래는 찬연하고 민족의 장래는 창창하다.

〈김정일선생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신것은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로동신문('92. 1. 5)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텔레비전화면에서 뵈게 된 서울대학교의 한 학생은 걱정을 누를길이 없어 이렇게 격조높이 말하였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처음 뵈옵는 분이지만 어느분이 그이이신가를 알수 있다. 장군님처럼 첫순간에 벌써 사람들의 넋을 잡아끄는 분이시다. 예지와 슬기가 빛나는 안광, 정열과 자신심이 넘쳐나는 자세만 보아도 지, 인, 용을 겸비하신 지도자상이시다.》

- 남조선 강원도 고성의 한 어민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영명하고 인품이 높으신 지도자선생님께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국사를 떠나가시니 모든게 다 잘될것이다. 멀지 않아 미국놈들이 쫓겨가고 통일되면 우리 이남민중도 지도자선생님의 보살피심을 받으며 잘살게 될것이다. 나의 마음은 자나깨나 늘 평양에 가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과 지도자선생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선생님만을 믿고 곳곳이 살아가자.》

- 한생을 예술에 바쳐온 서울의 한로인은 수년전 서울을 방문했던 평양 예술단의 공연을 본 감격을 두고두고 잊을수 없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예술이 오늘과 같이 세계정상에 올라서서 명성을 떨치게 된것은 이북민중이 위대한 정치활동가이시고 경제에 다박다식하신 위인이실뿐 아니라 예술분야에서도 천재적인 분을 지도자로 모시였기 때문이다. 그분은 김정일선생님이시다. 우리 대에 김정일선생님과 같으신 비상유능하신 또 한 분의 위인을 지도자로 모시였으니 이보다 더 큰 민족의 자랑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온 겨레가 그이를 길이 길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산의 한 무역회사 사원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할 때 느낀 인상을 동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정말이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모신 자랑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큰 나라가 위인을 낳는것이 아니라 위인이 위대한 민족을 낳는다는 말의 참의미를 이번 해외여행에서처럼 실감한 때는 없었다. 우리 이남민중도 외세의 예속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자면 세기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받으시는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과 주체의 향도성이신 김정일선생님을 따라야 한다.》

-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런 뜻깊은 이야기도 있다.

《김정일선생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북녘을 향해 그분을 우러른다. 그러면 울적하던 마음은 봄날의

눈석이처럼 사라지고 신심과 용기가 용솟음친다.》

〈「김정일화」에 깃든 남녘의 민심〉

로동신문('92. 2.3)

-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남녘의 한 애국자에 의하여 남조선땅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것은 몇해전이다. 그동안 《김정일화》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무한히 경모하는 각계각층 남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손에 떠받들려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도처에 퍼져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나고 있다.
- 여기에 몇해전 일본에 갔을 때 구한 《김정일화》를 남조선에 가져다가 온갖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꾸어 활짝 피운 부산의 한 화초애호가¹⁾가 그 꽃을 보러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런 뜻깊은 이야기가 있다.
《「김일성화」에 이어 「김정일화」가 세상에 피어난것은 우리 민족의 경사이며 자랑이다. 세인이 것처럼 경모해마지 않는 김정일선생님과 같으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이고 영광이며 행복이다. 「김정일화」, 이 꽃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슴속에 그분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붉게붉게 피워나가야 한다.》
- 해마다 온 가족이 뜻깊은 2월의 봄명절을 맞으면서 《김정일화》를 활짝 꽃피우군한다는 서울의 한 《공무원》가정에 어느날 사

람들이 모여들었다.집주인은 자기 집 은 가족이 애써 가꾸고 활
짝 피운 《김정일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격정에 넘치는
어조로 이런 말을 하였다.

《「김정일화」는 일본의 이름있는 식물학자가 가꾸고 꽃피워 친
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선물로 올린것이다. 그런데 그 귀한 꽃
송이가 우리 집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다. 우리 가족들은 「김정
일화」를 가장 귀중한 가보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붉고 소담하게 피어난 「김정일화」에서 조국
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사상리론의 영재〉

로동신문 ('92. 2. 10)

-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뵈게 된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감격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은 과시 뛰어난 분이시라는것을 인차 알수 있었
다. 누구보다도 먼 앞날을 내다보시는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
셨기에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발
전풍부화시키시여 시대와 인류의 향방을 더욱 휘황히 밝혀 주
고 계신다.》
- 서울의 한 지식인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친애하는 김정일지도
자선생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학생들의 이
야기를 듣고 《그것은 우리 이남민중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친

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고 하면서 《지도자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민중처럼 영광스럽고 행복한 민중은 이 세상에 없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 그는 《참말로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은 우리 민중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영명한 령도자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라고 말하고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옵기를 바랍니다》라고 선창하며 학생들과 함께 설인사를 올렸다.
- 부산의 김 아무개 지식인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에게 《김정일 선생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슬기,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령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백두산의 숨결로 살아야 한다〉

로동신문 ('92. 3. 5)

- 서울 구로공단의 리 아무개로동자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다.

백두산은 김정일선생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명산이다. 그래서 우리 겨레들은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분께서는 조국광복의 총성이 울리던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광명성으로 빛나셨고 준엄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천재적예지와

슬기를 꽃피우시였다.

- 시내의 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 아무개 교원은 어느날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로부터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아직은 백두산에 깃든 전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을 어린 자녀들이 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묻는것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은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조선의 명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산이 높고 산정에 천지가 있어서만이 아니다. 이 산은 또한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서 탄생하신곳이다. 그이께서는 항일대전의 충성이 메아리치는 백두산의 설한풍속에서 탄생하시여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예지를 키워오시였다. 때문에 오늘 이 산은 세계만방에 더욱 빛을 뿌리고 있으며 지도자선생님의 존함은 백두산밀영의 정일봉과 함께 길이 빛나고 있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들에게 《우리모두 통일의 그날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 찾아가 만민이 부르는 흠모의 송가 〈빛나라 정일봉〉을 마음껏 소리높이 부르자》고 말해주었다.

- 《김일성장군님의 영웅전설이 깃들어 있고 김정일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어서빨리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목포의 중학교학생들, 《우리는 언제나 백두산의 숨결로 살아야한다. 백두산은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고 용기이며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고무적 힘

을 안겨주고 있는 부산의 한 로동자.

〈통일 조국에 높이 모실 향도의 태양〉

로동신문 ('92. 3. 7)

- 의학에 뜻을 두고 대학에 진학했으나 인간의 병을 고치기전에 썩고 병든 사회제도부터 개혁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회운동에 뛰어든 서울의 장 아무개 학생이 학우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는바 그것은 곧 빛과 별이라고 본다. 나는 최근에야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르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태양의 두 속성과 결부시켜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바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고 그분들의 무한한 인간애, 동포애는 태양의 별 즉 열이라고 확신한다. 이 세상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지도자선생님처럼 찬란한 빛을 주시고 따사로운 사랑의 별을 주시는 령도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 ㄷ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가족들에게 《김정일선생님과 같은신분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무상의 영광이고 대경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북녘을 향해 그분을 우러른다. 그러면 울적하던 마음이 봄날의 눈석이처럼 사라지고 신심과 용기가

용솟음친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받드는 길에 통일조국의 무궁한 장래와 민족중흥의 활로가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는데 모든 힘과 마음을 다바쳐야 한다.

- 그리고 거리와 아파트, 달리는 자동차와 대학가들에 《김정일선생님의 높으신 뜻 받들어 자주, 민주, 통일의 려명 앞당기자》, 《민족의 향도성 김정일지도자님을 따르자》, 《김정일비서는 민족의 태양》, 《겨레여, 동포여 자랑하자, 민족의 태양—김일성, 통일의 향도성—김정일》, 《통일의 향도성 김정일지도자 만세!》라는 글발을 새겨 원썩들을 전률케 하고있는것이다.

〈김정일선생님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희망〉

로동신문 ('92. 3.15)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돌을 계기로 남녘인민들속에서는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들이 꽃피었다. ,
세계 여러나라에서 21만 6,000여개의 보석과 구슬을 구해다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년장수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귀중한 정성품을 만들었다는 남녘의 한부부, 남조선 강원도의 태백과 정선, 원주 등지에 《김정일비서의 50회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인쇄물들을 돌린 사람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 그의 만년장수를 간절히 축원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남녘땅

그어느곳에서나 찾아볼수 있었다.

- 광주에 사는 한 재야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은 절세의 위인이시다. 높으신 식견과 비범한 예지로 주체의 사상리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위인이신 김정일선생님을 향도의 구심점에 모신것은 참으로 우리 민중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이야기는 남녘민중들속에서 전설처럼 울려나오기도 하였다.

《왜놈들이 망하기 몇해전부터 백두산 마루에는 향도성이라는 밝은 별이 떠서 8도강산을 비쳐주었다. 백두산의 향도성이 어찌나 밝은 빛을 뿌렸던지 백호가 노래하고 주작이 춤을 추었다. ...백두산의 향도성은 오늘 세계천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 향도의 별이 바로 김정일지도자님이시다.》,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서 주체라는 신묘한 지휘봉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 봉을 한번 드시면 어둠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고 천만산악도 길을 비킨다.》, 《김정일선생님의 령도술 또한 신비로와 그분께서 한번 부르시면 만백성이 일시에 화답하여 일어나 용암처럼 끓는데 잠시후면 지하에서 금은보화가 줄지어 쏟아져 나온다.》,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담력이 크고 지략이 출중하시여 산을 허물어 바다를 메우시고 궁궐같은 건축물들을 수풀처럼 세우신다.》

- 남조선의 한 오랜 언론인은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분입니다. 정일봉에 무지개가 비낀것은 분단된 이 땅에 조국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는것을 온 겨레에게 알려주는 기쁨의 징조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김일성주석께서 일본 100만 관동군을 무찌르고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아오신 그해에도 백두산에는 바로 그 무지개가 눈부시게 비졌었다는것을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다.》

- 2월의 명절을 계기로 남녘땅 여러곳에서 랑송되군했다는 송시 《천만년 빛나라 향도의 태양》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흠모하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

아 2월의 태양아래

아름답게 피어나는 수천만 마음의 꽃들

오늘의 삶과 신심은 오직

래일의 희망과 행복도 오직

다도해기슭까지 한나산 저 끝까지

보시는 그 빛발속에 있는것이고

펼치시는 그 노을속에 보는것입니다

향도의 태양 김정일동지!

이 겨레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위해

천만년 무궁토록 빛나시고

억만년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십시오.

〈김정일선생님을 모신것은 7천만 거래의 대행운이다〉

로동신문 ('92. 3. 29)

-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때 서울 쉐라톤호텔의 한 직원은 이런 말을 하였다.

북의 손님들이 오기 전날밤에 나는 참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두산천지우에 밝은 태양과 큰 별이 떠서 밝은 빛을 뿌리더니 금시에 이 넓은 서울장안이 환히 밝아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더니 온 서울시가 환호성으로 들끓고 만백성이 그 태양과 별을 향해 두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겠지요. 그래 나도 다른이들처럼 금빛찬란한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더니 글썽 내손에 금빛물이 들었더라말입니다. 순간 나는 바로 저 태양, 저 별이 김일성장군님,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려니 어디 다리가 놀려져야지요. 그러다가 깨어나니 글썽 꿈이더라 말입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 서울시의 한 로인은 우리 기자들의 가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우러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뵈지 못한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김일성주석의 초상휘장과 함께 김정일선생님의 초상휘장도 모시고 오지. 이 늙은이가 뵈게 말이요》라고 자기의 절절한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김정일원수님은 문무와 충효를 완벽하게 겸비한 천하명장〉

로동신문 ('92. 5. 4)

- 서울 명동에 사는 한 재야운동단체 인사는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 원수칭호를 수여한것은 그분을 우리 민족의 령수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장군님과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녀사의 천품을 타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김정일원수님은 문무와 충효를 완벽하게 겸비한 천하명장이시다. 하늘이 낸 명장을 원수로 모셨으니 민족의 대통운이 아닐수 없다.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는것 같아 기쁜 마음 진정할수 없다.

- 고려대학교 4학년 리 아무개 학생은 《남녘의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하루빨리 통일의 단상에 높이 모실 그날을 위해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더욱 과감히 나설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은 문무, 충효를 완벽하게 겸비하신
천하명장이시다〉

로동청년 ('92. 6. 12)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고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내외에 널리 전해졌을 때 고려대학교 4학년 리 아무개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바로알기운동을 통해 친애하는 지도자님은 김일성주석의 민중중시의 정치를 계승해 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실뿐 아니라 걸출한 군사대가이시라는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무를 겸비하신 김정일지도자님께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데 이어 원수로 추대되신것은 그분에 대한 온 겨레의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그분의 향도따라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민족의지의 발현인것이다.》

- 남조선 강원도의 강원대학교 한 학생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인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찬란한 향도의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면서 한결같이 따르고 있다. 국제사회계가 우러르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영명한 지도자로 모시고 있으니 민족의 밝은 앞날은 확고히 기약되어 있다. 지도자선생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행동하는 여기에 우리의 참된 삶이 있고 광명한 미래가 있다.》

<통일의 향도성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따르자!>

로동신문 ('92. 6. 19)

- 서울과 충주, 광주, 광주의 여러곳의 우편통들에서는 《통일의 향도성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따르자!》, 《받들어 모시자 민족의 령수 김일성, 민족의 향도성 김정일》라고 쓴 선전물들이 나타났으며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서울시내 여러 대학들과 광주와 리리의 여러 대학들에는 《김정일비서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쓴 인쇄물들이 수많이 뿌려졌다.

대구에서는 대낮에 《향도성 김정일》이라는 대형프랑카드가 걸리고 시내거리에 《우리겨레의 통일의 향도성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이라고 씌여진 인쇄물이 많이 뿌려져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서울의 여러 대학가에는 이런 인쇄물이 뿌려졌다.

《받들자 따르자 김정일비서. 그분은 우리의 행복, 우리 민중의 영광, 우리민족의 향도성. 민중을 존중하시고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일비서의 품에 안길 그날 위해 싸워나가자! 김정일비서의 높으신 뜻 받들어 자주, 민주, 통일의 려명 앞당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 아무개 주민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은 분단민족의 고통과 설움을 가셔주시고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7천만 겨레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불면 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통일의 구성이시고 겨레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한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을 경모하는 우리국민의 마음도 바로 그분을 모심으로 해서 민족의 앞길에 대가 이어지게 되고 밝은 장래가 기약되게 되었다는 굳은 확신에서 나온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자랑과 감정의 분출이라 할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앞에는 대미예속에서 벗어나 민족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성스러운 과제가 나서고 있다.

이 민족사적대업을 성공으로 종착시기자면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향도따라 나아가야 한다.

〈김정일선생님은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중의 스승이시다〉

로동신문 ('92. 7.15)

○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부산대학교의 리 아무개 교수가 민족의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중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지난 6월 25일 병문안을 왔던 제자들이 자기를 스승으로 잊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그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우리가 인생의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존경하며

따라야 할분은 다름아닌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이시다.

나는 김정일선생님의 저작을 읽고 비로소 육체적생명과 사회 정치적생명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인간의 값높은 삶은 개인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키고 민족, 민중의 자주성실현에 헌신하는데 있다는 진리를 한갓 지식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터득한 사람이다.

그분은 진정 민족과 민중을 위해 충실하게 사는것이 곧 자기자신을 위하고 인생을 참되게 사는 길임을 가르쳐주신 스승중의 스승이시다.

〈희세의 영걸〉

로동신문 ('92. 7. 19)

- 지금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민족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따르고 있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에게도 견줄수 없는 희세의 영걸》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영명한 지도자로 찬송하는 글과 영상사진이 수많은 배포되어 사람들을 크게 격동 시켰다.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민은 선전물로 배포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뵈옵고 《이분이 바로 우리 민중이 오매불망 뵈고

싶어하는 민족의 향도성이신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선생님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그것을 이복의 현실에 구현하시여 민중의 락원을 세워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령도예술의 천재이시다. 한 나라 지도자가 지녀야 할 모든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계시는 김정일선생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받들어 모신것은 7천만 겨레의 자랑이고 대행운이다.》

○ 남조선의 한 투쟁단체 성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충청남도일대에 《2월 16일은 민족의 위대한 향도성이신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대경사의 날입니다. 우리모두 이날을 맞아 영명하신 김정일지도자선생님께 삼가 열렬한 축하와 만수축원의 큰절을 올립니다.》라고 쓴 선전물을 다량 배포하고 온 겨레가 그이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은 그들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다해 꽃피우며 가장 귀중한 가보로 간직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여 김정일화를 처음으로 보게 된 남조선의 한 기자는 서울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에게 《평양에 있는 초대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김정일화를 처음 보게 되었고 그 래력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서울로 가져오지 못하고 꽃을 사진찍어 가지고 와서 액틀에 넣

고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동료는 흥분된 마음을 금치 못해하며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집 아니 온 남녘땅 모든 집들에 김정일화를 활짝 피웠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원수님은 문무, 충효를 완벽하게 겸비한 천하명장이시다〉

로동신문 ('92. 8. 4)

-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장군님과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녀사의 친품을 타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김정일원수님은 문무, 충효를 완벽하게 겸비한 천하명장이시다. 하늘이낸 명장을 원수로 모셨으니 민족의 대통운이 아닐수 없다.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는것 같아 기쁜 마음 진정할수 없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원수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기원한다.》

이것은 서울명동에 사는 한 재야인사의 격정에 넘친 말이다.

- 괴뢰육군 9사단의 한 중위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쳐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군대도 많지만 이북군대처럼 문무를 겸비하신 위대한 정치가, 만고의 명장을 모신 군대는 더는 없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원수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민중뿐아니라 세계민중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미국의 용병생활을 끝장내고 최고사령

관 김정일원수께서 이끄시는 민족군대로 복무해봤으면 좋겠다.》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중의 대행운이며 영광이다〉

로동신문 ('92. 8. 9)

남조선의 한 시인은 시 《민족의 향도성을 우러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아, 영광이여 행복이여
영명하신 향도자를
높이 모신 크나큰 자랑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여!

...

그이 모시여 통일의 려명 밝아오고
그이 모시여 민족의 영광
천대만대 길이길이 빛나리

- 어느해 2월 16일 아침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리념씨클원들의 모임을 끝내고 교정에 나섰던 한 학생은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를 두손으로 고이 받아들고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이 눈송이들은 단순한 눈송이가 아니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의 생신날을 축하하는 천지의 꽃보라입니다. 례년에 없는 이 호합진 눈송이들은 지도자선생님을 흠모하는 이남민중의 넋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자선생님의 옥체만강을 바라옵니다.》

〈백두산을 바라보면 힘이 솟는다〉

로동신문 ('92. 10. 15)

- 경기도의 한 자동차운전수는 운전칸천정에 백두산을 그려놓고 동료들에게 《나는 백두산에 가는 심정으로 차를 몬다. 항상 백두산을 머리우에 이고사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백두산을 바라보면 힘이 솟는다.》라고 말하였다.
- 경상남도 진주의 한 중학교 교원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시 《만년축수》를 지어 학생들앞에서 낭송하였다.

...

아 우리 민족의 운명의 대표자이시고
마음의 기둥이시며
통일의 향도성이신
김정일지도자님이시여!
천지가 잠을 깨고 세계가 평양을 우러르는
경사스러운 2월의 이 아침
파쇼가 란무하는 어지러운 이땅에서도

가장 순결하고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담아
삼가 만년축수의 인사를 드리웁니다.

...